

목 차

제 I 장 서 론	1
제 II 장 제주지역 경제 및 기업체 현황	3
1. 제주경제 현황	3
1-1. 지역내 총생산 추이	3
1-2. 제주 산업구조의 변화	4
2. 제조업 현황	7
2-1. 제주 지역내 산업별 현황	7
2-2. 전국 제조업 현황	8
2-3. 제주도내 제조업 현황	9
2-4. 제주도내 제조업 세부 현황(중소기업 기준)	10
3. 제조업 경영현황	14
3-1. 도내 제조업 경영현황	14
3-2. 도내 제조업의 특징	16
제 III 장 기업유치 및 제조업 단지 선행연구	22
1. 기업유치 선행연구	22
1-1. 선행연구 1.	22
1-2. 선행연구 2.	24
1-3. 선행연구 3.	25
2. 제조업 단지 선행연구	28
2-1. 선행연구 1.	29
2-2. 선행연구 2.	30
2-3. 선행연구 3.	31

제Ⅳ장 기업유치 및 제조업 단지 사례	35
1. 기업유치 사례	35
1-1. 사례 1.	35
1-2. 사례 2.	37
1-3. 사례 3.	38
1-4. 사례 4.	39
2. 산업단지 사례	41
2-1. 사례 1.	41
2-2. 사례 2.	42
2-3. 사례 3.	43

제Ⅴ장 제주형 제조업 개념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기업체 조사	46
1. 제주형 제조업 개념 정립	46
2. 조사 개요	47
3. 조사 내용	49
3-1. 설문 조사 내용	49
3-2. 기업 일반 현황	49
3-3. 기업 경영 현황	51
4. 경영환경의 문제점	55
4-1. 기업 경영 현황	55
4-2. 인력 수급	56
4-3. 판로 확보	57
4-4. 기술 혁신	57
4-5. 자금 조달	58
5. 제조업 업종 유지 요인	59

제Ⅵ장 제주형 제조업 활성화 방안	60
1. 도내 제조업체 지원정책	60
2. 제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요인	61
2-1. 제조업 경영환경 개선사항	61
2-2. 기술혁신역량 강화	62
2-3. 자금지원 정책 강화	65
2-4. 판로확보 지원 정책 강화	68
2-5. 인력지원 방안	71
2-6. 공장(사업장) 입지환경 개선방안	73
2-7. 지원기관 기능강화 방안	74
3. 지원 서비스 수요 분석	75
제Ⅶ장 결 론	81
■ 참고문헌	85
■ 부록 1. < 설문지 >	87
■ 부록 2. < 회귀분석 추정결과표 >	95
■ 부록 3. < 도내 제조업체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	99

<표 목차>

<표 II-1> 지역내 총생산	3
<표 II-2> 제주지역 산업부문별 부문분류표	5
<표 II-3> 제주도 산업구조(2000년)	6
<표 II-4> 제주 지역내 산업 및 제조업 현황	7
<표 II-5> 전국 제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9
<표 II-6> 도내 제조업 사업체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10
<표 II-7> 제주도내 중소제조업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11
<표 II-8> 제주도내 중소제조업 업종별 생산액 및 부가가치	12
<표 II-9> 제조업 경영분석 결과	16
<표 II-10> 제조 업종별 기여율	17
<표 II-11> OECD 기술수준별 산업분류 기준	18
<표 II-12> 제조업 기술수준별(OECD) 산업분류 현황	18
<표 II-13> 제조업종별 특화도 분석(2005년)	19
<표 II-14> 제주도 지역 산업간 영향력 정도	21
<표 III-1> 기업유치 선행연구	26
<표 III-2> 산업단지 선행연구	33
<표 IV-1> 기업유치 사례	39
<표 IV-2> 산업단지 사례	44
<표 V-1> 조사 대상 기업	48
<표 V-2> 조사 설문 내용	49
<표 V-3> 업종별 생산 유형	52
<표 VI-1> 중앙정부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 기술 경영혁신 정책 ...	64
<표 VI-2> 중앙정부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 ...	67
<표 VI-3> 중앙정부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 판로 정책	70
<표 VI-4> 안정적 인력수급 위한 지원기관 정책	72
<표 VI-5> 변수내용	77
<표 VI-6> 변수의 기술적 통계	78
<표 VI-7> 순위 로짓분석 결과	79
<표 VII-1>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요인에 대한 기술적 통계	81

<그림 목차>

<그림 V-1> SWOT분석	46
<그림 V-2> 업종별 현황	49
<그림 V-3> 종업원수 현황	50
<그림 V-4> 소재지 현황	50
<그림 V-5> 제조업체 생산 유형	51
<그림 V-6> 가동률	53
<그림 V-7> 가동률 추이(최근 3년간)	53
<그림 V-8> 연구 개발의 유형	54
<그림 V-9> 자금 조달 방법	55
<그림 V-10> 기업 환경의 애로사항	56
<그림 V-11> 인력 확보 어려움의 주요 원인	56
<그림 V-12> 판매 어려움의 주요 원인	57
<그림 V-13> 기술개발 어려움의 주요 원인	58
<그림 V-14> 자금 조달 어려움의 주요 원인	59
<그림 V-15> 업종 유지 주요 요인	59
<그림 VI-1> 기업환경 개선 위한 지원기관 주요 사안	61
<그림 VI-2> 신기술개발 위한 지원기관 주요 사안	62
<그림 VI-3> 자금조달 위한 지원기관 주요 사안	65
<그림 VI-4> 판로확보 위한 지원기관 주요 사안	69
<그림 VI-5> 안정적 인력수급 위한 지원기관 주요 사안	72
<그림 VI-6> 입지환경 개선 위한 지원기관 주요 사안	74
<그림 VI-7> 지원기관 이용 애로사항	75
<그림 VI-8> 지원서비스 유형	76

제 I 장 서 론

- 전통적으로 제주의 산업구조는 감귤로 대변되는 1차산업과 관광으로 대표되어지는 3차산업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이의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음.
- 1차산업은 그 경제적 특성상 수요 및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어서 경기변동에 따른 가격폭락과 폭등에 취약함. 따라서 특정 지역경제의 1차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지역경제의 건전성을 약화시킴.
- 관광산업의 경우 경기 선행적이기보다는 경기 후행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광산업만 가지고는 한 지역의 성장동력 산업의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름.
- 따라서, 지역경제의 균형성과 건전성을 위해 제주지역에서 일정수준의 제조업 육성이 필요함.
-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청정환경이라는 개발 제한적 요인으로 인해 제조업이 자리잡기에 불리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임.
- 상기요인으로 말미암아 제주지역에 있어서의 제조업은 타지역과 차별화되어질 수 있는 제주형 제조업 개념정립이 절실함.
-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의식에서 논의의 출발점을 삼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제조업이 제주도에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을 추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음.

- 제II장에서는 제주지역 경제 및 기업체 현황을 다루고 있으며 그 다음 장에서는 기업유치 및 제조업 단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술함.
- 제IV장에서는 기업유치와 제조업 단지에 대한 실 사례를 요약하고, 제V장에서는 제주형 제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주형 제조업의 개념정립과 정책제안이 토대를 이루는 설문조사의 개요를 요약함.
- 제VI장에서는 설문분석 그리고 제조업 지원정책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제VII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 제언을 함.

제Ⅱ장 제주지역 경제 및 기업체 현황

1. 제주경제 현황

○ 본 절에서는 대표적 거시변수라 할 수 있는 지역내 총생산과 미시변수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제주지역의 산업현황을 다룰 것임.

1-1. 지역내 총생산 추이

<표 Ⅱ-1> 지역내 총생산

(단위 : 백만원, %)

년도	당해연도 가격			2000년 기준년도 가격			1인당 GRDP (천원)	
	제주(A:GRDP)	전국(B:GDP)	비중 (A/B)	제주(A:GRDP)	전국(B:GDP)	비중 (A/B)	제주	전국
1995	4,196,907	410,130,587	1.0	4,917,682	485,493,634	1.0	8,203	9,095
1996	4,531,796	459,378,982	1.0	5,165,769	516,296,494	1.0	8,818	10,091
1997	4,840,918	496,993,736	1.0	5,324,953	536,326,139	1.0	9,378	10,815
1998	4,607,646	479,823,673	1.0	4,729,745	486,246,063	1.0	8,875	10,366
1999	4,895,133	527,603,243	0.9	4,885,301	534,692,601	0.9	9,371	11,318
2000	5,289,484	577,970,942	0.9	5,289,484	577,970,942	0.9	10,091	12,295
2001	5,591,249	620,905,233	0.9	5,691,656	600,932,175	0.9	10,582	13,111
2002	6,301,741	685,946,405	0.9	6,003,038	647,259,430	0.9	11,811	14,404
2003	6,785,510	731,626,781	0.9	6,193,804	668,502,258	0.9	12,650	15,287
2004	7,343,063	786,362,375	0.9	6,276,810	702,088,402	0.9	13,619	16,369
2005	7,663,867	817,811,875	0.9	6,501,185	730,121,176	0.9	14,149	16,989

자료 :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통계청.

- 특정 국가나 지자체의 경제현황은 크게 거시(Macro)와 미시(Micro) 수의 변수 추이로 파악되어짐.
 - 특정경제의 집계변수(Aggregate Variables)로 알려진 거시변수는 크게, 지역내 총생산(GDP, GRDP), 물가, 소비, 투자, 고용 등이 있음.
 - 미시변수는 개별재화의 추이와 관련이 있으므로 각종 산업변수를 들 수 있음.
- <표 II-1>은 기준년도(2000년)와 비교년도(2005년)로 평가한 전국 및 제주의 지역내 총생산에 대한 시계열 자료임(1995~2005).
- 당해연도와 기준년도 공히 크게 두드러진 변화는 보이지 않으나 98년 이후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9%로 하락하였으며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나 IMF사태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임.
- 2000년 중반 이후 뚜렷한 수치의 변화가 없음은 한차례 비중이 하락한 이후 이렇다 할 반등이 없었음을 나타냄.
 - 동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제주지역의 GRDP 성장률도 90년 중반 이후 대체로 전국성장률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런 추이가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음.

1-2. 제주 산업구조의 변화

- 제주도 산업구조는 타 지역과는 다르게 산업분류에 ‘감귤’이 있다는 것과 ‘관광’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임.
- 제주도는 2000년도 GRDP가 4조7,880억원이며 그 중 22.4%인 1조720억원이 농림·어업에서 비롯되었으며 감귤조수입은 그 1/3인 3,710억원임(표 II-3).
- 광·공업 생산액은 감귤조수입의 1/2 이하 수준인 1,800억원으로 지역총생산의 3.8%에 불과함.

- 사회 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의 생산액은 3조5,360억원으로 지역총생산액의 73.8%를 차지하여 전국 60.6%보다 12%포인트가 높음. 사회 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취업인구 비율은 제주도나 전국 다같이 70% 내외였으나 농림·어업은 전국 8.7%에 비하여 제주도는 26.6%로 3배나 높음. 반면, 광·공업은 전국 20.6%에 비하여 제주도는 3.6%로 1/5 이하로 매우 낮은 편임.
- 산업비중을 전국과 비교했을 때 제주도는 1, 3차 산업 특히 1차 산업이 높고 2차 산업이 매우 낮은 것이 특징임.

<표 II-2> 제주지역 산업부문별 부문분류표

부문	부 문 명	부문	부 문 명
1	벼, 맥류, 잡곡	22	일반기계
2	채소 및 과실	23	전기 및 전자기기
3	감귤	24	정밀기기
4	기타 식용작물	25	수송장비
5	감자	2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6	화훼 및 비식용작물	27	전력, 가스 및 수도
7	축산	28	건설(건축및건축보수)
8	양돈	29	건설(토목건설)
9	임산물	30	도소매
10	수산어획	31	관광산업1(음식점)
11	수산양식	32	관광산업2(숙박)
12	광산품	33	관광산업3(관광객운송서비스)
13	음식료품	34	관광산업4(여행관련서비스)
14	섬유 및 가죽제품	35	관광산업5(문화, 오락)
15	목재 및 종이제품	36	운수 및 보관
16	인쇄, 출판 및 복제	37	통신 및 방송
17	석유 및 석탄제품	38	금융 및 보험
18	화학제품	3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9	비금속광물제품	40	공공행정 및 국방
20	제1차금속	41	교육 및 보건
21	금속제품	42	사회 및 기타서비스

- 제주도 산업구조의 특징에 따른 산업경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산업구조의 편중성이 심함.
 - 1, 3차 산업에 대한 편중도가 높고, 동 산업 내에서도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의 비중이 과다하여, 이들 산업의 침체 시 제주경제 전반의 타격이 크고, 외부경제여건에 따른 변동이 큼.
 - 또한 1, 3차 산업을 보완할 수 있는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데 문제점이 있음.
- 둘째, 제조업 구조가 극히 영세함. 다시 말해, 음식료품, 비금속소재 등 재래업종 중심의 영세한 구조를 갖고 있어 지역 내 제조업의 성장 전망이 불투명함.

<표 II-3> 제주도 산업구조(2000년)

(단위 : 십억원, 천명, %)

구분	지역총생산				취업인구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생산액 (십억원)	구성비 (%)	생산액 (십억원)	구성비 (%)	인구 (천명)	구성비 (%)	인구 (천명)	구성비 (%)
합계	503,452	100	4,788	100	20,857	100	279	100
농림·어업 (감귤)	22,686	4.5	1,072 (371)	22.4 (7.7)	1,816	8.7	74	26.6
광·공업	175,799	34.9	180	3.8	4,298	20.6	10	3.6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304,967	60.6	3,536	73.8	14,734	70.7	194	69.8

자료 : 제2차 제주도종합발전계획과 통계청, 통계DB(KOSIS).

- 셋째, 지식기반산업이 미약함. 지식기반 제조업과 고차원적 생산자 서비스업의 미발달로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따른 기회요인 포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넷째, 산업간 연계성이 취약함. 관광산업과 농·수·축산업 간의 연계성이 약하고, 이들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축매산업이 부재함.

2. 제조업 현황

2-1. 제주 지역내 산업별 현황

<표 II-4> 제주 지역내 산업 및 제조업 현황

(단위 : 개, 명)

산업별	2004년		2005년		2006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산업	42,531	167,612	43,305	171,844	43,609	176,648
농업 및 임업	368	4,852	389	4,366	375	4,637
어업	111	1,047	121	911	122	1,379
광업	13	201	15	230	13	140
제조업	1,926	8,044	2,016	8,580	2,031	8,556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6	1,083	28	1,038	27	1,275
건설업	1,054	8,272	1,154	9,070	1,188	10,148
도매 및 소매업	11,652	30,706	11,556	30,788	11,599	31,054
숙박 및 음식점업	10,446	32,583	10,245	32,520	10,210	31,130
운수업	5,629	11,767	5,788	12,432	5,914	13,026
통신업	111	1,538	119	1,489	125	1,485
금융 및 보험업	569	8,241	552	8,346	570	8,493
부동산 및 임대업	881	2,982	935	2,828	955	3,034
사업서비스업	767	6,060	792	6,739	895	8,12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69	9,909	381	9,477	274	9,534
교육 서비스업	1,525	13,578	1,689	14,561	1,763	15,02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007	8,003	1,084	9,023	1,118	9,543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572	7,680	1,766	8,665	1,676	9,279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4,505	11,066	4,675	10,781	4,754	10,780

자료: 2004년~2006년 사업체기초통계, 제주특별자치도.

- <표 II-4>는 2004년~2006년도에 걸쳐 제주지역의 산업현황을 요약한 것임.
- 3개년도 공히 1차산업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과 3차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2006년도 현재 제주도내 산업별 사업체수는 43,609개로 전년(43,305개)에 비해 304개업체(0.7%)가 증가하였으며, 종사자수는 176,648명으로 전년(171,844명)대비 4,804명(2.8%)가 증가함.
- 제조업체수는 2,031개로 도내 전체산업 사업체수의 4.7%를 차지하며, 제조업 종사자수는 8,556명으로 전체산업 종사자수의 4.8%를 차지함.

2-2. 전국 제조업 현황

- <표 II-5>는 2004년~2006년도에 걸쳐 전국의 제조업 현황을 사업체수와 종사자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임.
- 전국 제조업 사업체수는 2006년 현재 340,724개이며, 경기도가 88,020 (25.8%)개로 가장 많은 사업체수를 보유하고 있음.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67,484개(19.8%), 부산광역시 27,799개(8.2%)순이며, 제주는 2,031개(0.6%)로 전국 최하위권임.
- 국내 제조업체 종사자수는 3,435,491명으로 종사자수 또한 경기도가 996,071명(2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서울특별시 445,157명(13%), 경상남도 348,752명(10.1%) 등 순임. 제주는 8,556명으로 전국 2.5%를 차지함.

<표 II-5> 전국 제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산업별	2004		2005		2006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국	328,338	3,417,164	340,183	3,450,893	340,724	3,435,491
서울특별시	68,866	464,256	69,982	473,643	67,484	445,157
부산광역시	27,898	211,951	28,062	200,895	27,799	199,795
대구광역시	23,597	160,358	23,936	155,484	23,683	154,329
인천광역시	21,026	232,616	21,381	225,663	21,203	227,528
광주광역시	7,375	72,719	7,527	69,606	7,597	70,371
대전광역시	6,513	47,542	6,528	47,326	6,563	47,206
울산광역시	4,885	141,522	5,108	140,668	5,143	142,754
경기도	79,788	974,029	85,539	995,534	88,020	996,071
강원도	6,538	44,665	6,567	42,120	6,507	41,749
충청북도	8,401	119,892	8,673	122,416	9,006	128,220
충청남도	11,296	178,975	11,780	184,533	11,894	189,920
전라북도	9,415	83,179	9,439	82,279	9,452	84,648
전라남도	10,095	85,561	10,487	89,118	10,536	90,622
경상북도	17,506	253,224	18,531	265,013	18,561	259,813
경상남도	23,213	338,631	24,627	348,015	25,245	348,752
제주도	1,926	8,044	2,016	8,580	2,031	8,556

자료 : 2004년~2006년 사업체 기초통계, 제주특별자치도.

2-3. 제주도내 제조업 현황

- 제주지역내 분포하는 제조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별 내용이 <표 II-6>에 요약되어 있음.
- 2006년 현재 도내 제조업체수는 2,031개로 전년에 비해 15개 업체(0.74%)가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0.6%에 해당함.

- 종사자수는 8,556명으로 전년도 8,580명에 비해 2.8% 감소하였고, 전국대비 2.5%에 해당함. 또한 사업체당 고용인원이 평균 4.2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가 없음.
- 도내 제조업체는 1,964개(96.7%)가 단독사업체로 주로 독립형 경영구조로 되어 있으며, 지사로 있는 업체도 42개 업체로 2.1%에 해당함.

<표 II-6> 도내 제조업 사업체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사업체 구분별	2004		2005		2006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국	계	328,338	3,417,164	340,183	3,450,893	340,724	3,435,491
	단독사업체	310,434	2,044,473	322,727	2,129,360	320,414	2,057,689
	공장,지사,영업소	9,464	707,325	9,247	655,278	10,927	680,659
	본사,본점	8,440	665,366	8,209	666,255	9,383	697,143
제주도	계	1,926	8,044	2,016	8,580	2,031	8,556
	단독사업체	1,871	6,784	1,950	6,980	1,964	7,036
	공장,지사,영업소	32	626	43	754	42	702
	본사,본점	23	634	23	846	25	818

자료 : 2004년~2006년 사업체기초통계, 제주특별자치도.

2-4. 제주도내 제조업 세부 현황(중소기업 기준)

- <표 II-7>은 2005년~2006년에 걸친 제주도내 중소제조업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을 요약하였음.

<표 II-7> 제주도내 중소기업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평균 종사자
	2005년	2006년	전년 대비	2005년	2006년	전년 대비	
계	318	354	11.3	4,200	4,313	2.7	12.2
음식료품	101	117	15.8	1,644	1,742	6.0	14.9
담배	-	-	-	-	-	-	-
섬유제품	3	4	33.3	36	29	-19.4	7.3
봉제의복및모피제품	4	4	-	38	46	21.1	11.5
가죽,가방및신발	-	-	-	-	-	-	-
목재및나무제품	5	7	40.0	33	37	12.1	5.3
펄프,종이및종이제품	7	7	-	148	141	-4.7	20.1
출판,인쇄및기록매체복제	23	20	-13.0	460	482	4.8	24.1
코크스,석유정제품및핵연료	2	1	-50.0	-	11	-	11.0
화합물질및화학제품	7	9	28.6	97	102	5.2	11.3
고무및플라스틱제품	25	29	16.0	284	311	9.5	10.7
비금속광물제품	58	66	13.8	710	761	7.2	11.5
제1차금속산업	1	1	-	-	15	-	15.0
조립금속제품	30	33	10.0	228	243	6.6	7.4
기타기계및장비	14	16	14.3	116	113	-2.6	7.1
컴퓨터및사무용기기	1	1	-	-	23	-	23.0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	14	16	14.3	95	109	14.7	6.8
전자제품,영상,음향및통신부품	1	-	-	-	-	-	-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	3	4	33.3	24	32	33.3	8.0
자동차및트레일러	-	-	-	-	-	-	-
기타운송장비	2	4	100	-	26	-	6.5
가구및기타제품	16	15	-6.3	114	90	-21.1	6.0
재생용가공원료	1	-	-	-	-	-	-

자료 : 2005~2006년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중소기업(5~299인)에서 재편·가공, 통계청.

- 도내 제조업종 중 음식료품 업종(33%)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비금속광물 제품(18.6%), 조립금속제품(9.3%), 고무플라스틱제품(8.2%) 등의 순으로 비중을 구성하고 있음.
 - 2005년 대비 2006년 사업체수 변화는 음식료품 업종이 16개, 비금속광물이 8개 업체가 늘어났으며, 그 외는 큰 변화가 없음.
 - 반면, 사업체수가 가장 적은 업종은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와 제1차 금속산업, 컴퓨터및사무기기(각 1개) 등임.

- 업종별 종사자수도 음식료품업종이 1,742(40.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비금속광물제품 761명(17.6%), 출판·인쇄및기록매체복제 482명(11.2%), 고무및플라스틱제품 311명(7.2%) 등 순으로 나타남.
 - 2005년 대비 2006년 종사자수 변화는 113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음식료품 업종이 98명, 비금속광물제품 업종이 51명 증가함.
 - 반면, 종사자수가 가장 적은 업종은 사업체수가 가장 적은 업종인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의 11명이며, 다음으로 제1차금속산업(15명), 컴퓨터및사무용기기(23명)등 업종임.
 - 2006년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전체적으로 12.2명으로 전년도(13.2명)에 비해 1.0% 감소함.

<표 II-8> 제주도내 중소제조업 업종별 생산액 및 부가가치

(단위 : 백만원, %)

구 분	생산액			부가가치		
	2005년	2006년	전년대비	2005년	2006년	전년대비
계	711,909	629,400	-11.6	299,978	278,600	-7.1
음식료품	329,429	316,500	-3.9	141,648	139,700	-1.4
담배	-	-	-	-	-	-
섬유제품	1,255	1,300	3.6	576	600	4.2
봉제의복및모피제품	1,924	3,100	61.1	860	1,500	74.4
가죽,가방및신발	-	-	-	-	-	-
목재및나무제품	2,127	2,100	-1.3	879	1,100	25.1

구 분	생산액			부가가치		
	2005년	2006년	전년대비	2005년	2006년	전년대비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5,129	27,500	9.4	8,982	9,800	9.1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31,365	29,900	-4.7	21,618	21,500	-0.5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	900	-	-	800	-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21,469	1,800	-91.6	8,618	8,500	-1.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6,621	30,700	15.3	9,318	12,500	34.1
비금속광물제품	143,719	142,800	-0.6	62,271	58,900	-5.4
제1차 금속산업	-	1,700	-	-	700	-
조립 금속제품	23,049	18,700	-18.9	8,916	6,900	-22.6
기타 기계 및 장비	13,500	11,000	-18.5	5,620	4,800	-14.6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	2,800	-	-	1,300	-
기타 전기 기계 및 전기 변환 장치	7,242	12,900	78.1	3,383	5,200	53.7
전자제품, 영상, 음향 및 통신부품	-	-	-	-	-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1,412	1,900	34.6	1,078	1,400	29.9
자동차 및 트레일러	-	-	-	-	-	-
기타 운송 장비	-	1,400	-	-	800	-
가구 및 기타 제품	6,090	6,200	1.8	2,726	2,600	-4.6
재생용 가공 원료	-	-	-	-	-	-

자료 : 2005년~2006년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중소기업 통계조사(5~299인)에서 재편·가공, 통계청.

- 제주도내 2005년, 2006년도 각 중소기업의 업종별 생산액과 부가가치가 <표 II-8>에 요약되어 있음.
- 생산액 규모가 가장 큰 업종 또한 음식료품업종이며, 그 다음으로 비금속 광물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 업종 순임. 반면, 생산액 규모가 가장 작은 업종은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이며, 다음이 섬유제품, 기타 운송장비 순임.
- 부가가치 생산액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음식료품이며, 그 다음으로 비금속 광물제품,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종 순으로 나타남. 반면, 규모가 가장 작은 업종은 섬유제품이며, 다음으로 제1차 금속산업, 코크스·석유정제

품·핵연료, 기타운송장비 등 순으로 나타남.

-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의 경우 64.6백만원으로 전년(71.4백만원)대비 9.5% 감소함.

3. 제조업 경영현황

3-1. 도내 제조업 경영현황

- 2006년 말 현재 도내 제조업 기업들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은 대체로 전년도에 비해 악화되었으며, 매출액 증가율 또한 현저하게 감소하여 성장성이 부진함. 활동성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재무구조, 수익성, 성장성 등 주요 경영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재무구조를 보면
 - 2006년말 현재 도내 제조업의 재무구조는 부채비율 94.6%로 전년도(94.7%)와 비슷하며, 전국 평균(98.9%)보다 낮음.
 - 자기자본비율은 51.4%로 전년도(51.4%)와 동일하며, 전국 평균(50.3%)보다 높음.
 - 유동비율은 146.6%로 전년도보다 낮아졌으나, 전국 평균(120.5%)보다 높게 나타남.
 - 차입금의존도는 28.1%로 전년도(24.8%)에 비해 상승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악화되었으나 전국평균보다는 양호함.
- 수익성
 - 도내 제조업의 수익성은 매출액영업이익률 5.4%로 영업이익의 대폭 감소에 따라 전년(9.0%)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전국평균(5.3%)보다는 높은 수준.
 - 매출액경상이익률은 4.4%로 경상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9.3%)에 비

해 하락하였으며, 전국평균(5.7%)보다 낮은 수준.

- 이자보상비율은 281.2%로 전년(469.2%)보다 하락하였으며, 전국평균(439.3%)보다 낮은 수준으로 모두 하락하는 등 전년에 비해 악화되었고 전국평균보다도 부진.

○ 성장성

- 도내 제조업의 성장성은 매출액증가율이 -6.3%로 전년(-3.3%)에 비해 매출액 감소 폭이 확대되었으며, 전국평균(6.3%)에 비해 크게 부진.
- 총자산증가율은 0.1%로 전년(12.2%)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으며, 전국평균(8.1%)보다 낮음.
- 유형자산증가율도 -5.5%로 전년(5.2%)보다 감소하였으며, 전국평균(6.0%)보다 낮은 수준 등 전년도에 비해 도내 제조업의 성장성은 크게 둔화되었고 전국평균보다도 부진함.

○ 활동성

- 활동성은 총자산회전율이 1.0회로 전년(1.0회)과 같은 수준이며, 전국평균(1.2회)보다는 낮은 수준.
- 매출채권회전율은 5.0회로 전년(4.6회)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전국평균(7.5회)보다 낮음.
- 재고자산회전율은 10.9회로 전년(12.1회)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전국평균(10.8회)에 비해 소폭 상회하는 등 도내 제조업의 활동성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이는 등 별 변화가 없었고 전국평균보다는 부진함.

○ 상기 사항은 <표 II-9>에 요약됨.

<표 II-9> 제조업 경영분석 결과

(단위 : %, 회)

구 분		2005년말		2006년말		평가	
		제주	전국 평균	제주	전국 평균	전년대비	전국 평균대비
재무구조	부채비율	94.7	100.9	94.6	98.9	악화	양호
	자기자본비율	51.4	49.8	51.4	50.3		
	유동비율	162.1	121.4	146.6	120.5		
	차입금의존도	24.8	22.9	28.1	22.4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9.0	6.1	5.4	5.3	악화	부진
	매출액경상이익률	9.3	6.5	4.4	5.7		
	매출액순이익률	7.9	5.3	3.1	4.5		
	이자보상비율	469.2	525.4	281.2	439.3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3.3	5.9	-6.3	6.3	둔화	부진
	총자산증가율	12.2	9.4	0.1	8.1		
	유동자산증가율	12.3	10.3	-5.1	6.8		
	유형자산증가율	5.2	6.2	-5.5	6.0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1.0	1.2	1.0	1.2	비슷	부진
	매출채권회전율	4.6	7.7	5.0	7.5		
	재고자산회전율	12.1	10.9	10.9	10.8		
	유형자산회전율	3.0	3.0	3.0	3.0		

자료 : 2006 제주지역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제주본부.

3-2. 도내 제조업의 특징

- 제주지역의 제조업은 농수산물의 1차 가공을 위주로 한 음식료품제조업과 건설중간재로 쓰이는 레미콘 등의 비금속광물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제조업종별 기여율¹⁾

- <표 II-10>은 2002년~2006년에 걸친 제주지역 제조업종별 성장 기여율을 나타낸 것으로 도내 16개 제조업종 중 음식료품업이 71.1%로 가장 높게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음으로 비금속광물제품이 1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1.1% 순으로 나타남.

<표 II-10> 제조업종별 기여율

(단위; %)

구 분	2002년~2006년	순위
음식료품	71.1	1
섬유제품	0.4	9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2.5	6
목재 및 나무제품	-0.8	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6.6	4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3.3	15
화합물 및 화학제품	-3.0	1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1.1	3
비금속광물제품	14.0	2
조립금속제품	-1.1	11
기타기계 및 장비	0.9	8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5.4	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0	7
가구 및 기타제품	-3.2	14
기 타 ^{주)}	-2.7	12
계	100	

주)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1차금속산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기타운송장비,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자료 : 년도별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에서 재편·가공, 통계청.

○ <표 II-11>는 OECD 산업분류를 기술하며 크게는 기술과 특화 성향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음.

1) 기여율=(해당업종 부가가치 증감액)/(총부가가치 증감액)×100

<표 II-11> OECD 기술수준별 산업분류 기준

OECD산업분류		부문명
기술	고기술산업	반도체, 전자부분품, IT기기
	중고기술산업	화학제품, 일반기계, 가전기기, 자동차, 정밀기계
	중저기술산업	석유석탄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일차금속제품, 금속제품 기타수송기계, 기타제조업
	저기술산업	광업, 음식료품, 섬유및의류, 종이·인쇄·출판
특화성향	자원집약	음식료, 목재제품, 석유정제업, 비금속광물제품, 비철금속
	노동집약	섬유·의류·신발, 조립금속제품, 기타제조업
	공급특화	비전자기계, 전자기기, 반도체·통신기기
	규모집약	인쇄·제지, 의약품을 제외한 화학물, 고무·플라스틱제품, 철강, 조선, 자동차, 기타수송기계
	과학기반	항공우주, 컴퓨터, 의약품, 과학기구

○ 상기 기준에 따른 제주도내 제조업 분포도는 <표 II-12>에 나타나 있음.

<표 II-12> 제조업 기술수준별(OECD) 산업분류 현황

(개, %)

기술수준별 산업분류	2004년	2005년	2006년	전년대비
고기술산업	47(2.4%)	53(2.6%)	63(3.1%)	0.5%
중고기술산업	120(6.2%)	129(6.4%)	137(6.8%)	0.4%
중저기술산업	755(39.2%)	750(37.2%)	721(35.5%)	-1.7%
저기술산업	1,004(52.1%)	1,084(53.8%)	1,110(54.6%)	0.8%
합계	1,926(100%)	2,016(100%)	2,032(100%)	

- 동표에 의하면 2006년 기준, 제주도내 제조업 기술수준별 산업유형별로 보았을때 음식료품, 섬유·의류, 종이·인쇄·출판과 같은 저기술산업형이 1,110개(5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비금속 광물제품, 기타수송장비, 기타제조업 등과 같은 중저기술산업형이 721개(35.5%)를 차지하고 있음.
- 고기술산업형 및 중고기술산업형도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06년 기준, 제주도내 제조업 특화성향별 분류기준에 의하면 도내 제조업은 주로 자원집약형태 1,034개(51%)로 분포되어 있음.

<표 II-13> 제조업종별 특화도 분석(2005년)

구 분	전국	제주	입지상계수 ^{주)} (LQ)	비 고
음식료품	8.6	46.3	5.38	특화업종
섬유제품	4.7	0.2	0.04	-
의복 및 모피제품	2.3	0.3	0.13	-
목재 및 나무제품	1.0	0.3	0.30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2.6	3.5	1.35	특화업종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2.1	4.4	2.10	특화업종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12.3	3.0	0.24	-
고무및플라스틱제품	6.9	3.7	0.54	-
비금속광물제품	4.2	20.2	4.81	특화업종
조립금속제품	8.5	3.2	0.38	-
기타기계 및 장비	11.7	1.9	0.16	-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	5.4	1.0	0.19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1.6	0.2	0.13	-
가구 및 기타제품	2.6	0.9	0.35	-

- <표 II-13>은 2005년도 도내 제조업종별 특화도를 입지상 계수(LQ: Locational Quotient)로 나타낸 것임.
- 입지상 계수는 특정 지역의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업종)에 대한 상대적인 비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해당 산업(업종)의 특화정도를 나타냄. $LQ > 1$ 인 경우 전국적인 수준에 비하여 해당 지역의 특정 산업(업종)이 특화 또는 전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LQ < 1$ 이면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함. $LQ = 1$ 이면 해당 지역의 특정업종이 전국 평균 수준의 특화정도임을 의미.
- <표 II-13>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1차, 3차 산업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제조업은 매우 취약하며 제조업 특화업종도 음식료품, 펄프·종이및종이제품, 출판·인쇄및기록매체복제, 비금속광물제품 등 4개에 불과함.
 - 이들 특화업종은 1993년 4개업종(비금속광물제품, 음식료품, 출판·인쇄및기록매체복제, 기타운송장비), 2003년 3개업종(음식료품, 비금속광물제품, 출판·인쇄및기록매체복제)으로 1개업종이 제외(중소기업연구원, 2004)되었으나 2005년도에도 변화가 거의 없음
 -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업종 또한 유일하게 없는 지역임.
- 영향력계수는 전 산업평균 생산유발계수에 대한 산업부문별 생산유발계수의 비율로서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이것이 전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후방연쇄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됨.
- 감응도계수는 전 산업의 최종수요를 모두 한 단위씩 증가시키기 위해 어떤 산업이 생산해야 할 단위의 전 산업 평균치에 대한 비율로서 전방연쇄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됨.
- 상기 구계수의 값이 1보다 크면 그 부문의 영향력이 전 산업 평균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함.

<표 II-14> 제주도 지역 산업간 영향력 정도

감응도 계수		영향력 계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023	음식점 및 숙박	1.651
금융 및 보험	1.517	기타	1.637
음식료품	1.505	섬유 가죽제품	1.485
섬유 가죽제품	1.399	음식료품	1.406
기타	1.329	비금속광물제품	1.255
농수산물	1.302	사회 및 기타서비스	1.108
도소매	1.164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1.028
전력가스 및 수도	1.125	운수 및 보관	1.027
비금속광물제품	1.083	공공행정 및 국방	1.020
통신 및 방송	1.066	전력가스및수도	1.020
운수 및 보관	1.064	건설	1.008
광산품	1.030	도소매	0.999
건설	1.019	목재, 종이제품	0.986
교육 및 보건	0.91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966
전기전자기기	0.904	농수산물	0.956
목재, 종이제품	0.812	화학제품	0.930
음식점 및 숙박	0.801	금융 및 보험	0.9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0.780	전기전자기기	0.904
화학제품	0.756	교육 및 보건	0.904
금속제품	0.736	광산품	0.890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0.720	통신 및 방송	0.888
공공행정 및 국방	0.713	금속제품	0.866

자료 : 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방향설정, 고태호(2006).

- <표 II-14>는 상기 정의에 입각하여 제주도 지역의 산업들의 전, 후방 연관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감응도와 영향력 계수를 보여주고 있음.
- 동표에 의하면 전방연쇄효과의 크기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금융 및 보험”, “음식료품”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후방연쇄효과의 크기는 “음식점 및 숙박”, “섬유가죽제품” 및 “음식료품”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제Ⅲ장 기업유치 및 제조업 단지 선행연구

- 기업유치는 지역 내 자원 유입과 고용 창출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도모함.
- 특히 대기업을 지방 유치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지자체 들은 기업 유치를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음.
- 제주는 지역특성상 대기업 유치는 물론이고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입지여건이지만 외부 기업유치의 필요성은 절실함.
- 본 장에서는 성공적인 투자기업 유치와 제조업 단지 활성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연구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함.

1. 기업유치 선행연구

1-1. 선행연구 1.

□ 광주·전남지역 내·외부²⁾ 기업관계자 156명을 대상으로 기업유치와 투자환경조사 : (강법식·김덕모, 2006).

- 광주·전남지역은 전국 총생산액의 2%~4%로 타지역에 비해 경제규모가 작고, 농·수산업 등 1차 산업 비중이 매우 큰 지역임. 이로 인해 높은

2) 내부기업은 광주·전남지역에서 본사를 두고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며, 외부기업은 타지역에서 본사를 두고 광주·전남지역에 자본 및 기술을 투자하여 사업장을 두고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을 말함.

실업률과 낮은 재정자립도 및 1인당 소비지출액 등 각종 경제지표 최하위권임.

- 따라서 기업유치와 투자환경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기업경영환경, 기업유치활동 및 효과, 투자환경 및 개선사항 요소를 활용하여 내·외부기업 간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사용 분석함.
- 분석결과, 기업경영환경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인식. 활발한 기업활동을 위해 지방정부의 세제 및 행정지원 강화, 투자인프라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적극적인 기업지원체제 구축.
- 또한 외부기업유치 활동에 대해 매우 낮은 평가를 나타내고 있어,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기반구축 및 투자인센티브 제공, 투자유치 활동 및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 외부기업의 투자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함.
- 광주·전남지역의 투자 매력요소로는 기업의 입지조건, 풍부한 노동력,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미래발전 가능성, 풍부한 관광문화자원 순으로 나타남.
- 반면, 투자 기피요소에 대해 기업관계자들은 사회기반시설의 취약, 강성노조 등의 부정적 지역이미지, 외부기업에 대한 배타적인 지역정서 등과 같은 요소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사회기반시설 중 광역교통망 및 물류시설의 미흡은 물류비용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외부기업들의 투자 기피현상을 초래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방정부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지역경제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반시설 구축 및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확충, 기업입지 경쟁력을 강화. 또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에 필요한 규제나 제도의 개선과 투자인센티브 및 생활환경개선 등과 같은 사업 편의적 요인들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함.

- 전반적으로 기업관계자들은 광주·전남의 경영 및 투자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음. 광주·전남은 투자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투자지역 중 하나에 불과하며, 다른 지자체에 비해 결코 투자환경이 유리하거나 특별하지 않음.
-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위해 지방정부의 규제완화, 투자유치 기반구축 및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적 지원, 지역민의 친 기업적 마인드 형성, 노사 간의 안정된 노사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시사함.

1-2. 선행연구 2.

□ 전국 537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투자 의향과 지방투자 의향 조사 : (박재곤·이원빈, 2005).

- 본 연구는 지역별 기업 투자 실태 및 지방투자의 문제점을 파악 후 투자 활성화 정책방안을 제시.
- 기업의 지방투자 의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방투자계획 유무, 지방투자의 매력과 애로요인,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과제,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조사.
- 기업의 투자계획 조사결과, 투자의 양적인 확대나 질적인 개선 모두 부진한 결과를 나타냄. 또한, 투자계획 중 해외투자 동기는 저렴한 생산비용과 현지시장 진출이며, 국내투자의 주된 저해요인은 각종 비용 상승과 경기부진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룸. 또한 정부의 규제나 정책의 불확실성도 국내투자 부진요인으로 인식됨.
- 기업의 지방투자 매력요인으로 공장용지 확보용이, 저렴한 생산비용 등이며, 협력업체의 집적이나 기업가의 연고지 등 요인도 지방투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국내투자의 대상지역으로 대다수가 인근지역을 고려, 기업의 투자는 한번 투자한 지역에 계속 투자하는 경향을 보임. 따라서 외부의 신규투자 유치보다 지역 기업들의 증액투자 유도가 효과적임을 시사.

- 기업투자 결정요인으로 지방투자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단순히 인센티브 제공만으로 지방투자를 유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지방투자의 애로요인으로 시장 및 기술정보 부족, 인력확보 곤란, 시장과의 거리, 협력업체 부족 등으로 나타나 지방투자 환경의 질적개선을 요구함.
- 또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우선과제로 인센티브 및 기반시설 확충, 인력지원, 산업용지 공급 확대, 자금지원 등 순으로 나타남.
- 지방투자 활성화 정책방안으로 인센티브 시스템 개선 및 규제개혁과 같은 제도적 요인과 행정적 요인으로 전담인력의 확충, 경제적 요인인 지역별 특화클러스터, 차별화된 입지여건 개선 등과 같은 중·단기 정책 과제를 제시함.

1-3. 선행연구 3.

□ 강원도내 창업기업, 이전기업 및 이전할 기업, 전문가 등을 포함 총 384명을 대상으로 제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 (변용환, 2006).

- 강원도 제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에 대해 강원도내 환경요인의 중요도와 만족도, 정책요인의 중요도와 만족도 등 중심으로 Grid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강원도의 대표적 이미지는 청정자연과 관광으로 기업유치와 관련된 이미지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저렴한 부동산 가격만이 확실한 경쟁우위를 지님.
- 이에 비해 인력수급, 산업공단, 교통, 연관산업 등 기본적인 기업 유치조건들이 경쟁지역에 비해 열위.
- 지방에서 기업유치 위해 중요한 순서는 인력수급, 교통, 생활 인프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의 현 입지환경에 대해 저렴한 부동산, 지역이미지, 주민호감도 순으로 만족도를 나타냄.
- 지방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중요한 정책요인으로 인력양성 및 조달 세계 지원, 공무원 서비스마인드, 인력조달 순으로 나타남. 또한, 강원도의 현

기업유치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홍보 및 보조금,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으로 나타나 강원도의 총체적인 자금지원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요인은 전문인력 부족, 지방기피, 3D업종 기피 순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과제 제시. 장기과제로 인력수급, 교통조건, 생활 인프라, 산업인프라의 개선을, 단기 및 중기과제로 인력양성 및 조달, 행정서비스 및 경영지원 개선을 제시함. 또한 연구, 생산, 판로개척, 인력의 지속적 지원과 같은 유치 후 사후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 상기 내용을 포함한 기업유치에 대한 선행연구는 <표 III-1>에 요약됨.

<표 III-1> 기업유치 선행연구

연구자	내 용	비 고
강법식, 김덕모 (2006)	광주·전남지역 내·외부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업경영환경, 기업유치활동 및 효과, 투자환경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 기업하기 좋은 환경 방안 모색	국토연구논문 제49권
박재곤·이원빈 (2005)	기업의 지방투자 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	산업연구원
변용환 (2006)	강원지역 기업유치 및 육성정책 수립 위해 2000년 이후 강원도에 유치된 350여개 기업현황과 폐업, 타 도시로의 진출상황 파악. 또한 유치 이후의 매출, 고용 등의 시계열 현황(지역별, 산업별, 규모별)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정책방향과 자원배분 등 강원도의 기업유치활성화 방안제시	강원발전 연구원

연구자	내 용	비 고
김경희 외 3인 (2007)	부산지역의 첨단의료기기 산업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 및 기업유치 등을 논의함. 특히 (주)디에스아이의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과급효과분석과 정책제언을 제시함	부산발전 연구원
이광국 (2007)	부산의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기업유치를 논의함. 기장군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 예를 통해 유형설정, 기업유치가능성 및 기업지정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실시함	부산발전 연구원
최명희·조계근·변용환(2006)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세수의 증대효과 파악을 위해 국지적 사례 분석. 하이트맥주 홍천공장의 사례를 통해 기업유치가 지방세수 증대에 미치는 기여도를 파악	한국세무학회
최외출 (1995)	지역기업정책 사례를 분석, 평가 후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정책,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지원 및 관리정책 방향제시	한국지역개발 학회
이삼주 (2000)	지방세 감면제도가 정책목표를 어느 정도 수행하는 지를 파악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 지방세 감면제도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	한국지방재정 논집
최백렬·박광서·김석진(2006)	전북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실태 및 전북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제시	국제경영리뷰
박완수 (2004)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외자유치에 대해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방안 제시	경남법학회

2. 제조업 단지 선행연구

- 산업단지(Industrial Estate, Industrial Park)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과 관련 교육·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해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함(산업법 제2조제5호).
 - 1990년대에 제조업 중심의 『공업단지』를 기술집약형 첨단산업 육성 및 생산·연구·물류·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배치·지원하는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로 개편.
 - 종래의 공업단지는 공장용지 중심으로 최소 지원시설을 유지, 이에 비해 산업단지는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향상을 도모함.

-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대해 살펴보며 특히,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혁신클러스터는 혁신관련 행위주체들, 즉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기관, 금융기관 등이 일정 공간 또는 지역 내에 입지하여 상호협력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를 말하며, 산업 또는 기업은 물론 지식의 창출, 확산부문까지 포괄한 종합적 시스템을 강조하는 것임.
 -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그 지역 특유의 혁신인자가 지역경쟁력, 나아가 지역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근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산업과 연구의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의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를 추진하고 있음(산업자원부, 2004).
 - OECD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산업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산업군집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중임. 주요 선진국들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개발하고 혁신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정책으로

중소·벤처기업의 네트워크 활성화, 산학연 연계 활성화 및 지역개발기구의 역할 강화 등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홍형득, 2008).

2-1. 선행연구 1.

□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로서의 입지여건과 시범사업의 효과분석 : (홍형득, 2008)

- 국내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로서의 입지여건을 평가하고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7개(반월·시화, 광주첨단, 창원, 울산, 구미, 원주태장) 시범단지(2004년 6월 확정되어 추진)와 일반단지의 비교를 통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함.
- 혁신클러스터의 입지여건 및 환경 분석을 위한 요인으로 혁신역량과 사회자본축적, 지식교류정도와 같은 혁신클러스터의 내적요인과 직접적인 여건, 환경적 여건 및 지원기관의 지원, 산업발전정도와 같은 외적요인임. 또한, 연구개발, 생산 및 인력양성, 마케팅 및 유통, 기업활동 여건과 같은 지원수단수요 등 세 가지 요인을 대상으로 함.
- 시범단지와 일반단지간의 차이분석을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사용, 시범단지간 차이분석은 t-검정을 사용함. 또한 정책효과는 지원정도와 입지환경 및 여건정도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관련성 정도를 측정함.
- 분석결과 입주기업들 대부분 단순제조업 중심의 영세기업으로 혁신클러스터로서의 입지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시범단지와 일반단지간의 차이분석에서는 혁신역량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시범단지가 일반단지보다 높게 나타남.
- 또한, 실질적인 기업이익의 증가 등의 하드웨어적인 요소보다는 지식교류와 사회자본의 형성 등의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에서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
- 향후 성공적인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클러스터의 본질적 차이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지원의 필요성 등 정책적인 제안을 제시함.

2-2. 선행연구 2.

□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의 경쟁력 분석 : (이원빈, 2006)

- 본 연구는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로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역량과 혁신역량의 변화추이를 시계열상으로 분석, 이를 바탕으로 단지별 발전경로를 추적하여 시범 국가산업단지 간의 경쟁력 변화추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단지별 특성 및 특화부분을 도출.
- 혁신클러스터 시범 산업단지(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의 산업역량과 혁신여건의 정량분석을 통해 단지별 경쟁력 분석.
- 시범단지별 산업역량 및 혁신역량 분석을 위해 총 7개의 평가지표 설정 분석. 산업역량지수로 1인당 생산액, 부가가치율, KPI(자본생산성지수), LPI(노동생산성지수)를 활용하였고, 혁신역량지수는 1인당 R&D투자, 1인당 특허건수, GRDP대비 R&D비중을 활용함.
- 시범단지별 경쟁력 비교분석을 위해 산업역량 수준과 혁신역량 수준을 단위정규화법(unit normal scaling)을 이용, 연도별 사분면상에서 경쟁력 지표의 이동경로 추적을 통해 비교.
- 분석결과, 시범단지별 주력산업, 여건, 강점 및 수준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 창원, 울산 등과 같은 전통적 산업단지 경우, 산업역량은 우수한 반면, 혁신역량이 취약. 또한 단지의 산업역량이 전국평균과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 발굴과 단지 구조 고도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함.
- 반월·시화와 구미는 산업역량과 혁신역량 모두 전국평균보다 높아 클러스터 형성에 비교적 우수한 환경을 갖춤. 반면, 반월·시화인 경우 영세한 중소기업이 많아 노동생산성은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따라서 매출액과 종사원수가 일정규모를 넘는 선도기업들 집중 육성 필요.
- 광주, 군산은 산업역량 및 혁신역량 모두 취약하나 특이점은 광주의 경우 혁신역량이, 군산의 경우 산업역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혁신역량이 산업생산적 성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연계활용 방안 모색과 기

업유치를 통해 단지의 집적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 제기.

- 각 시범단지별로 다양한 특징과 발전경로를 나타냄으로 혁신클러스터사업은 이러한 단지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 연구개발기능 및 기능 간 통합연계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지리적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클러스터 내의 R&D와 생산제조 기능 중 부족한 부분 보완, 기능 간의 연계를 통해 클러스터의 혁신역량 강화 필요.
- 한정된 자원 및 주어진 여건의 효율적 활용과 최적화를 위해 협력체제를 구축.
- 또한, 특정 지자체 내 부족한 혁신자원 보완·육성과 근접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효율성 제고 등 광역지자체 간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초광역적 클러스터 형성의 필요성을 제시함.

2-3. 선행연구 3.

□ 벨지움 Liège지방의 산업단지 연구 : (곽철홍, 2003)

- Liège지방은 도심지역 Liège와 주변의 위성도시 Huy, Waremme, Verviers, Eupen을 포함하는 인구 60만의 전형적인 제철공업지역으로 발달한 도시권 지역임.
- Liège지방은 1960년대부터 지역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각종 산업단지를 조성하였으나 미약한 지역경쟁력과 같은 요인으로 주변의 서부지역 도시에 비해 크게 낙후됨.
- 현재 Liège지방의 경제적 과제는 전통적 산업공간을 보다 합리적인 산업공간으로 재조직하고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 산업구조를 재조직하는 것임.
- 전통산업단지는 1960년대 주로 민간개발업자들이 교외지역 농경지를 매입 후 도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기반시설을 완비하여 이들 토지를 기업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로 제조업체들로 소수의 창고업과 수송업체들로 구성되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산업단지임.
- 이에 비해 197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신산업단지는 주로 중소규모

- 단지를 조성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복합시킨 산업단지가 대부분임. 최근에는 첨단기술산업단지, 과학연구단지, 사무업단지 등이 추가되고 있음.
- Liège지방을 사례로 교외지역에서 개발되는 산업단지의 입지와 개발양식 및 산업구조 특성을 규명하고, 도심지역 제조업의 교외 진출로 야기되는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고찰(비교연도는 1975년, 1985년, 1995년이며, 산업단지 입지기업 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함).
 - 연구결과, 교외지역 산업단지 입지는 고속도로와 주요간선도로 인접 및 도심지역 접근이 용이한 곳을 선호하며, 과거에 비해 사회적 분위기와 자연환경을 보다 중요시함.
 - 산업단지 유형은 과거 제조업체들로만 구성된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다양한 서비스업체들이 공존하는 중소규모의 복합적 산업단지 조성이 일반적이며, 교외지역의 산업단지는 신설되는 기업들보다는 도심지역의 이전 기업들로 충당.
 - 도심지역 제조업 진출원인은 시설의 노후와 부적합, 차량진입의 어려움, 토지시장의 압력, 인근 주민과의 불화, 행정적 조치 등이며, 제조업의 진출로 인해 실업증가, 인구감소, 세원감소에 따른 도시재정 악화, 산업폐허지 발생 등 심각한 문제점 발생.
 - 이에 지방정부는 도심지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한 정책으로 기업의 교외 이전 억제 및 진출기업의 복귀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약함.
 -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도 서부유럽 도시지역 산업단지 변화추세를 참고하여 기능적으로 보다 유연하고 활력 있는 산업공단으로 강화 위해 산업단지의 유형과 산업구조의 다양화 시도가 필요. 또한, 도심지역의 전통적 산업공간은 수용가능할 수 있는 도시형 산업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함.

□ 상기 내용을 포함한 산업단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표 III-2>에 요약됨.

<표 III-2> 산업단지 선행연구

연구자	내용	비고
홍형득 (2008)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로서의 입지여건 및 환경여건 분석과 시범단지와 일반단지 비교 통한 시범사업의 효과분석	한국정책학회
이원빈 (2006)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로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역량과 혁신역량의 변화추이를 시계열상으로 분석, 이를 바탕으로 단지별 발전경로 추적하여 시범 국가산업단지 간의 경쟁력 변화추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단지별 특성 및 특화부분을 도출.	KIET산업경제
곽철홍 (2003)	서부유럽의 대표적인 전통공업지역인 벨지움 Liège(레에즈)지방의 산업단지의 개발양식과 산업구조 특성을 확인하고 제조업 진출로 야기되는 도심지역 문제점과 해결방법 제시	한국경제지리학회
조영석 (2005)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를 사례로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조건을 논의함. IMF이후 산업환경변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향후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뿐만이 아니라 혁신주체간 신뢰구축이 혁신클러스터 성장의 주요요인임.	한국지역개발학회
김요한 (2007)	대구지역의 혁신클러스터의 조성은 동지역내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와 병행되어야 하며, 노후 도심공단의 재구조화를 통한 혁신클러스터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또한 ‘산업전환지대’, ‘산업입지촉진조성제도’의 벤치마킹과 제도적 응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대구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영남지역발전연구
유원근, 엄광렬 (2004)	1993년 강원도 동해시에서 조성된 북평산업단지는 항구의 시설이나 기능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열악함.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서 전문인력양성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확대 등 행정적 개선책과 항만배후산업단지의 임대제도 도입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함.	산업경제연구

연구자	내 용	비 고
이권형, 박종민 (2005)	인천지방산업단지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 개항, IT산업과의 접목기회 확대 등과 같은 강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활용하여 입주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인근 주거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친화적 산업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인천발전연구원
최영출 (1998)	영국은 북아일랜드를 비롯한 전역에 총 11개의 지역개발기관을 가지고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영국의 경우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장기적 관점지향 및 꾸준한 서비스, 차등적 보조금 제도 및 전략적 국가, 업종 선택 등이 있음.	충북개발연구원
최병호·문병근·이재우·정종필 (2005)	우리나라 제조업 클러스터를 실증적으로 확인, 그 결과를 지역 산업적 특화 분석에 적용하고 클러스터형성과 육성 중심의 지역경제발전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기대.	지역연구학회
정병순·박래현 (2007)	산업클러스터 식별 방법론을 탐색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한국 산업클러스터 식별하는데 목적을 둔 실증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

제Ⅳ장 기업유치 및 제조업 단지 사례

- 기업은 수익창출은 물론, 기업의 발전과 미래에 가장 부합되는 곳을 택해 이전을 결정하게 되며, 지방에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기업유치 지원정책 이상의 기업투자입지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함(금성근, 2006).
- 본 장은 기업유치와 제조업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당 지자체의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유치 및 제조업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1. 기업유치 사례

1-1. 사례 13).

□ 한국경남태양유전주식회사(韓國慶南太陽誘電株式會社)

- 한국경남태양유전주식회사는 1999년 9월 당시 투자액 2억달러(US\$)로 경남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진사지방산업단지)에 면적 171,692m²(52,000평) 규모로 설립된 회사임.
- 현지직원수 1,000명으로 전자부품의 일종인 적층세라믹콘덴서를 생산하는 상기회사는 일본태양유전(주)에 의해 설립된 100% 일본 투자회사이자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최초로 설립된 기업임.

3) 사례 1~사례 3은 월간지방의 국제화(2007년 9월호) 내용을 정리 인용함.

- 전자부품을 생산해 전량 수출함으로써 IMF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제조업 투자를 기반으로 대규모 고용을 창출해 오고 있음.
- 일본태양유전(주)이 경남지역 투자유치를 결정하게 된 데에는 1972년부터 국내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실시해 마산과 통영 등 경남에 한국태양유전 기업과 한국동양유전을 각각 경영, 이 경험을 통해 경남지역 내 투자유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음. 또한, 지정학적으로 일본 내 본사와 1일 생활권에 위치해 관리가 용이할뿐더러 기존 2개 공장의 우수인력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내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
- 외부적으로는 경남에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는 데다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인센티브제도가 외국기업에 유리하게 개정돼 있었음. 또한, 동남아 국가나 중국 등에 비해 높은 국내 노무비와 강한 노동조합 조직 등이 장애가 되기는 했지만, 우수한 노동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었음.
- 특히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침체된 서부경남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경남태양유전주식회사는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높이 사고 있음.
- 당시 본사인 일본태양유전(주)이 해외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남도지사와 투자유치 전문팀이 직접 일본태양유전(주)을 방문해 투자를 설득.
- 투자유치가 결정된 후에도 경남도는 한 개 창구를 통한 일괄지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신고 후 불과 49일만에 공장이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제공해 주었고,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한 옴부즈맨 사무소를 두고 기업 경영상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임.

1-2. 사례 2.

□ 주식회사 셀트리온 (CELLTRION, INC.)

- 주식회사 셀트리온은 2002년 2월 당시 투자액 약400억 원(총 800억원)과 현지 직원수 230명으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송도지역에 190,704㎡ (57,690평)의 규모로 설립된 회사임.
- 셀트리온은 인류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세워진 세계 3위 수준의 첨단 단백질 의약품 생산 전문 업체로 종합생명공학을 육성해 나가고 있음.
- 바이오산업을 위한 첨단 연구인력이 풍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설비 건설인력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높이 사 국내 투자유치를 결정.
- 특히, 송도에 공장을 건설한 것은 지리적 측면에서 인천국제공항 및 서울에 인접해 있고, IFEZ(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공하는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등도 송도를 투자처로 정한 결정적 이유였음.
- 셀트리온 설립 및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 인천시는 KOTRA의 지원을 받아 부총리가 직접 나선 싱가포르와 치열한 경합을 벌였고, 그 결과 높은 수준의 국제적 마인드로 무장한 IFEZ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셀트리온은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투자유치를 최종 확정할 수 있었음.
- 셀트리온은 회사 설립 이후 2,500억 원을 투자해 신약 개발을 위한 R&D 센터와 미국 FDA 및 유럽 EMEA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5만ℓ 규모의 첨단 단백질 의약품 생산설비를 설립하는 등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및 생산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해 가고 있음.
-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셀트리온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신약 개발을 위한 단계별 핵심역량을 지닌 국내 소규모 기업과 연구소, 병원, 대학, 벤처캐피탈 등 생명공학과 관련된 각 기능별 기업 및 기관들이 클러스터를 이루며 함께 발전하고 있음.

1-3. 사례 3.

□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Amkor Technology Korea Inc.) 광주공장

-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는 1999년 2월 당시 투자액 약4,000억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에 부지 39,325m²(13만 평) 규모로 설립됐으며,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사업을 하는 회사임.
-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는 미국 앰코테크놀로지 (Amkor Technology Inc.)의 한국 내 현지법인임.
- 1968년 당시 한국에서 처음으로 반도체산업에 착수한 아남산업과 1998년 새로운 CI 개발로 사명이 변경된 아남반도체가 그 전신으로, 이후 1999년 2월 미국 앰코테크놀로지가 아남반도체의 4개 반도체 패키징 공장 가운데 광주공장을 인수하면서 앰코 테크놀로지코리아(주)로 새롭게 설립됨.
- 2000년 5월에는 아남반도체의 나머지 반도체 패키징 3개 공장(서울, 부천, 부평 소재)을 모두 인수했으며, 2003년 6월 부천 소재 K2공장을 광주 소재 K4공장으로 이전해 3개 공장체제로 운영.
- 이후,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는 3개 공장에서 연간 20억 개의 반도체를 생산해 2006년 한 해에 FOB 기준 56억 달러에 이르는 수출실적을 달성, 반도체 완성품 외주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업계를 선도하며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의 광주지역 투자유치는 전라남도 및 광주의 지역경제 부흥을 장기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1995년 6월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내 부지를 매입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함.
- 1997년 공장 준공 당해년도에는 회사 전체 매출 대비 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데 불과했지만, 준공 10주년을 맞이한 2007년의 경우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주)의 핵심 주력공장으로 거듭나고 있음.

1-4. 사례 4.

□ 종가집 김치공장 : (충북경제세미나 자료, 2003)

- 종가집김치는 2001년 6월 경상남도 거창에 설립. 대지 11,237평, 건축면적 4,320평 규모로 설립됨.
- 거창의 종가집김치 공장은 300명이상 직원이 매일 90톤의 수출용김치를 생산하는 세계최대김치공장임.
- 유치배경은 경상남도 국내 기업유치팀이 2000년 5월 종가집 김치 제2공장 준비정보 입수 후 황성 본사를 방문 유치추진.
- 후보지는 무주와 거창으로 2000년 7월 회장단 현지실사. 경남도비 4억을 투입하여 공장부지의 평탄화 작업을 실시(2000년 7월~10월)하였고, 2000년 10월 공장 입지 결정을 함.
- 유치효과는 투자금액 217억, 연간매출 670억으로 500명(임금소득 년 50억) 고용효과와 농가소득 350억(무, 배추 등 계약재배)을 나타냄.
- 기업유치팀의 신속한 정보입수와 적극적 자세, 2000년 회장단 현지 실사 당시 상대적으로 무주에 비해 조건이 열악하였으나 이를 위한 개선을 위해 신속한 행동 및 조치가 기업유치의 성공요인으로 작용함.

□ 상기 내용을 포함한 기업유치에 대한 사례는 <표 IV-1>에 요약됨.

<표 IV-1> 기업유치 사례

지역	기업명	유치현황	유치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
경상남도 거창	종가집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6월 경상남도 거창에 설립. 대지11,237평, 건축면적 4,320평. · 세계최대김치공장으로 300명 이상 직원이 매일 90톤 수출용 김치를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 217억, 연간매출 670억으로 500명(임금소득 년 50억) 고용효과 · 농가소득 350억(무, 배추 등 계약재배)

지역	기업명	유치현황	유치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
광주	이지 디지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부천시에 본사 소재 본사 및 공장을 광주 하남산업단지(950평, 종업원90명)내로 이전 연매출액은 150억원(내수 80%, 수출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로 이전 후 사업장(3.8배)과 설비 증설 광주로부터 국비 및 시비 등 약 3억6천만원 보조금을 지원 받아 회사 안정화 및 신축적인 인력운영 효과
전북군산	캐나다 리나마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캐나다 온다리온주 구엘프시 본사 소재로 트랜스미션부문 세계적인 첨단기술 보유사 투자금액 4억달러로 2005년 전북 군산 자유무역지역내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기술 도입으로 기술경쟁력 강화와 생산품 세계 수출 직접고용 500명, 간접고용 약 6,000명 고용효과로 근로자의 임금은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에 파급
전북익산	(주) 동양물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창원시 본사소재(종업원 540명)로 연매출 2,100억원, 협력업체 40여개 규모기업 노후시설 보강 및 이전 적합지 물색 중 익산 왕궁농공단지내(32,000평) 유치 50억원 이전 보조금 지원 등 파격적 인센티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000억원 투자, 지방세수 증대 연 10억원, 고용창출 700여명, 노임소득 증대 연 280억원
경남사천	태양유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계 기업으로 1999년 유치 50년 부지 무상임대 및 각종 보조금 지원 국세와 지방세, 부가세 면제및 감면 등으로 기업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및 지방세 203억원(감면기간 10년 이후) 세수 증가 지역총생산 연간 2,760억원, 수출 2,200억원, 고용 4,670명(임금 575억원) 효과
전남나주	남양유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5년 천안공장 준공시작으로 유가공업계 최고의 시설을 보유한 기업임 투자금액 535억원 및 240명 직접고용. 공장규모 25,000평에 우유생산공장과 물류창고 시설지원 등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최고 200톤 집유(1억2천만원 매출/일), 연간 438억원 축산농가 141억원 순소득증대 고용창출효과 약 1,740명(직접 240명, 간접 1,500명)

지역	기업명	유치현황	유치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성 강한 전통문화 도시로 담배, 임업, 금속산업 등 재래산업 활발 · 낮은 생산비, 우수한 인프라, 친기업적 분위기 및 각종 지원제도와 같은 리치몬드시의 장점을 내세워 5년간 150개 기업, 50억불 유치 및 5만개의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토롤라와 지멘스가 합작한 White Oak Semiconductor사를 세계 최단기간에 공장 건설 등 적극적 지원으로 유치 성공 · 반도체 관련 부품 및 장비업체 진출증가
일본	쿠마모토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년 7월 기업유치체제 강화 및 유치기업 사업지원 목적으로 ‘기업유치연락협의회’ 설치 · 쿠마모토현은 테크노폴리스 개발을 핵으로 고도기술집적도시 건설을 목표로 함 · 외자비율 50%이상 유치기업에 5천만엔 보조금 지급, 투입 고정자본액 3분의2 한도 최고 4억엔 자금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대출신 인재들의 타지역 진출사례 적어 많은 우수 인재 보유 · 수도권 비해 입지비용 양호, 자동차로 2시간 이내 큐슈 어느 지역이든 갈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등이 외국 기업들에 높은 평가를 받음 · 반도체 자동검사장치 제조회사를 비롯 6개정도의 외국기업 현내 진출

2. 산업단지 사례

2-1. 사례 1.

□ 강원지역 북평국가산업단지 : (뉴스와이어, 2008.1.23자)

- 강원도의 북평국가산업단지는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일원에 총면적 2,588천㎡ 규모로 조성된 단지로 조성기간은 1989년~1995년으로 약 6년이 걸림.

- 동해안 시대의 중심공업지역 건설과 북방교류에 대한 무역 전진기지로 개발, 산업화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
- 분양률 30%(2005년 기준)대로 저조한 실정 보임. 이에 강원도는 정체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후 중앙관련 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2005. 3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과 2005.12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정이라는 성과와 함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
- 동시에 러시아(연해주), 일본(서안지역), 중국(동북3성) 등과의 물류유통에 따른 해상운송이 유리한 동해항의 입지적 여건과 원목, 알루미늄 등을 원료로 하는 수도권내의 제조업을 타킷으로 하여 기업유치에 매진함으로써 1,562천㎡의 면적을 100% 분양 완료.
- 총 21개 기업 유치 등 모두 144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 1,500여명의 고용인원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물류운송비용(50%), 폐수처리비용(50%), 은행대출이자 보전(2%) 등의 재정적인 지원과 단지 내 북평산업단지 지원 센터를 조직, 공장설립 등 각종 인허가 처리, 기업애로 사항 현장 상담 등 신속한 One-Stop 서비스체제 구축.
- 동해항컨테이너전용선 취항, 동해자유무역지역개발사업 본격 추진 등으로 국내 굴지 기업의 대규모 부지확보와 투자의향을 밝히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밝은 전망을 보임.
- 이에 강원도와 동해시는 북평산업단지와 연결된 지역에 100만㎡의 제2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할 계획임.

2-2. 사례 24).

□ 인천지방산업단지

- 인천지방산업단지는 인천 남구 및 서구 일대에 총면적 1,136㎡ 규모로

4) 사례 2~사례 3은 이권형·박종민(2005)의 보고서 내용을 정리 인용함.

1973년 4월에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며, 개별입지 자생단지로 폐염전 지대의 개발을 통해 조성된 단지임.

- 입지여건은 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이 양호한 거리에 근접하여 있어 지리적 여건이 양호하다 할 수 있음.
- 오수처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폐수는 위탁을 통하여 처리.
- 입주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전 제조업으로 특별한 제한 없음.
- 경제적 성과로는 2004년말 기준 총 230개 기업 입주, 고용인원은 4,050명이며, 생산실적은 15,936억 원으로 전년대비 16.6% 증가, 수출액은 73백만 달러 전년대비 52.1% 증가.

2-3. 사례 3.

□ 일본 오사카 아파트형 공장

- 일본 오사카는 도시형 중소기업단지 조성 위해 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CIT(City Industrial Town) 사업 전개.
- 이 사업은 시에서 전액 출자한 토지개발공사가 공업지역내의 공장이전지지를 도시개발자금으로 취득하여 단지를 조성, 분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 목표는 도시 내 산업 고도화 및 도시형 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산업 단지 조성.
- 대표적으로 제1호 사업 가미공업단지, 제2호 사업 常吉테크노파크, 제3호 島屋테크노파크사업 등 전개.
- 가미공업단지는 분양면적 10,569㎡규모로 대상업종 제한 없으며, 상길테크노파크는 18,910㎡ 공간 조성 메카트로닉스 산업 육성 도모, 島屋테크노파크는 조성 면적 35,255㎡의 공간에 연구개발형 기업대상 분양.
- 이 사업으로 주거지와 공업지의 인접 및 혼재로 인한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 공장이전부지의 재활용 및 재개발에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음.
- 주거 및 공업기능 조화와 아울러 영세한 소규모 공장의 활성화 도모, 주

거와 공업이 혼재된 노후 공업지역을 해당 지역의 문제해결에 적합한 사업제도를 통해 추진.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 주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특징이 있음.

□ 이외 산업단지 조성 사례는 <표 IV-2>에 요약됨.

<표 IV-2> 산업단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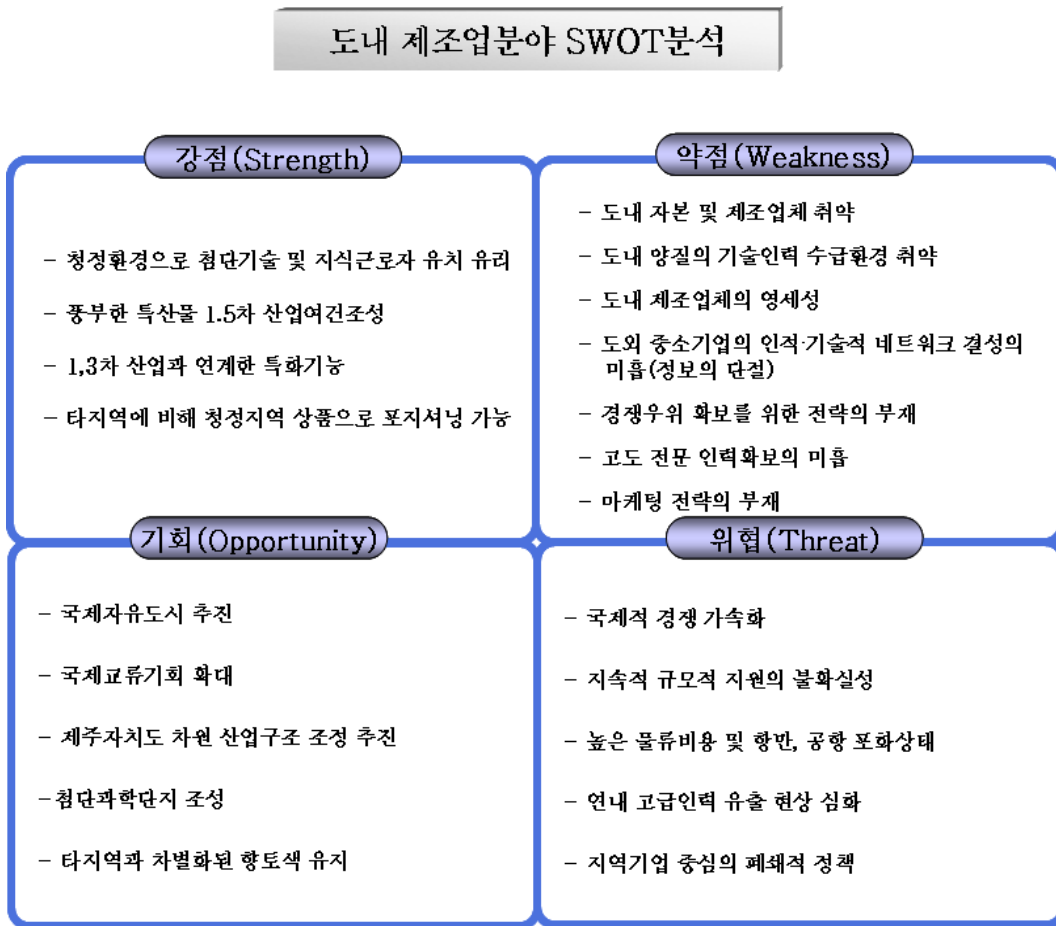
지역	산업단지명	유치현황	유치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
서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디지털산업단지의 사업체수(1,343개사), 종업원 수(36,564명), 연간 생산액(5조 490억원)이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 6.6%, 12.5%, 12.2% · 서울시에 대한 사업체수 비중에 비해 종사자수 비중이나 생산액 비중이 높은 것은 단지내 입주업체의 규모가 서울지역 제조업의 평균규모보다 상대적으로 큼을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을 배후도시로 갖고 있는 동단지의 혁신역량은 다른 단지에 비해 우수한 편이고 그 잠재력도 증대되어질 것으로 예측되어짐 · 다양한 혁신주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집결시켜 산업단지의 혁신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제나 전략이 미흡
창원	창원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업종 (기계: 58%), 기업수 (1,2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비전: 첨단기계 클러스터 · 혁신과제: 차세대 핵심 기계기술 개발
구미	구미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업종 (전기전자: 33%), 기업수 (7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비전: 디지털 전자산업 선도 · 혁신과제: 디지털 전자정보기술집적지 조성
울산	울산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업종 (자동차: 33%), 기업수 (7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비전: 자동차부품 글로벌 공급기지 · 혁신과제: 오토밸리(모듈화, 전문화, 대형화)
반월, 시화	반월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업종 (기계: 43%), 기업수 (6,0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비전: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 혁신과제: 업종별 소규모 클러스터 조성

지역	산업단지명	유치현황	유치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
광주	광주 산업단지	· 주력업종 (전기전자: 53%), 기업수 (156)	· 발전비전: 광산업 클러스터 · 혁신과제: 광기술원 중심의 산학 연계 활성화
원주	원주 산업단지	· 주력업종 (의료기기), 기업수 (32)	· 발전비전: 첨단 의료기기 산업거점 · 혁신과제: 의료기기 선도기업 유치
군산	군산 산업단지	· 주력업종 (자동차 부품: 52%), 기업수 (92)	· 발전비전: 자동차/기계부품산업 혁신클러스터 · 혁신과제: 자동차 중심의 혁신 생태계 기반구축
대구	성서 산업단지	· 경부고속도로, 구마, 88, 중앙 등 4개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 · 창원, 울산 등에 소재한 자동차 등 대규모 수요업체 및 원자재 공급업체인 포항제철과 인접해 있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도심 사이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음	· 조립금속, 운송장비, 전기전자 업종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어 동단지가 조립금속을 기반으로 운송장비 및 전기전자업종으로 특화집적이 이루어지고 있음
	서대구 산업단지	· 서대구 IC를 통한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시외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공단(비산염색공단, 성서공단)에 비하여 도심지역과의 완충지대에 위치해 있어 물류 등 생산지원거점으로서 입지여건이 좋음	· 동지역의 기계, 금속업체수는 감소한 반면, 섬유업체수는 소폭 증가하여 서대구산업단지 전체 입주업체의 4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운송, 정비 등 기타 업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제3 산업단지	· 주변 도로와 접근성이 용이해 교통이 편리하고, 반경 4km 거리에 대구 광역시청, 대구역, 그리고 종합유통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5km 거리에 동대구역과 대구공항이 위치한 도심공단임	· 대구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구미 산업 단지에 국내 최대의 IT 모바일 대기업(삼성전자, LG전자 등)이 다수 입지하고 있으며, 대구 칠곡 지구 (경북대에서 30분 거리)에 구미산업단지의 이동전화기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 기업이 현재 30여개에서 계속 집적화가 진행되고 있음

제 V 장 제주형 제조업 개념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기업체 조사

○ 본 장에서는 제주형 제조업 개념 정립을 위해 도내 제조업 분야에 대한 SWOT분석과 충족요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충족요인에 부합되는 제조업종을 선정하여 제주형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기업체 조사를 실시함.

1. 제주형 제조업 개념 정립



<그림 V-1> SWOT분석

- 제주형 제조업이 활성화 되어야 하거나 선택과 집중해서 육성해야 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인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제주의 청정환경 이미지로 인해 환경공해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제조업종의 불리한 경영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생적으로 성장한 제조업.
 - 환경 친화적이며 제주 지역에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바이오업.
 - 타 지역 기업 중 제주 지역에 전·후방 연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제조업.

- 그러나 본 연구의 예산규모와 제한적인 연구기간으로 <표 V-1>과 같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조사하고자 함.

- 본 조사대상으로 선택된 제조업종은 상기와 같은 요인을 만족시키므로 제주형 제조업 특성이 부분적으로 인정되어 그 대상으로 선택하여 조사함.

- 따라서 <그림 V-1>의 도내 제조업 분야의 SWOT분석과 상기와 같은 제주형 제조업의 충족요인과 지역적 특성에 의거, 제주형 제조업은 제주지역 환경적 특성에 특화된 기업(바이오산업, 건강뷰티·생물산업에 근간한 업체)⁵⁾ 및 도내 지역에 전·후방 연관효과를 타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미칠 수 있는 제조업종이라 할 수 있음.

2. 조사 개요

- 전통적으로 제주지역 제조업은 농수산물의 1차 가공을 위주로 한 업종과 비금속광물제조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고용,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첨단 제조업 및 고용친화적 기업 수가 미미하거나 규모가 영세함.

5) 서정대(2004)에 의하면, 지역별 강점 및 특성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을 제주인 경우 자연경관과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과 건강뷰티·생물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의 주요특징으로 제시.

- 이에 제조업체의 경영현황, 향후 사업계획, 지원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제주지역 제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조사의 조사기간은 2008년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간 조사하였으며,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시행됨.
- 조사대상은 도내 제조업체 중 제주지역 유망기업선정업체가 대부분 바이오 기업으로 이를 중심으로 조사 실시함. 조사 대상은 97개 업체이며, 그 중 성실히 응답한 87개 업체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함.
- 분석대상 기업 중 <표 V-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바이오기업은 음·식료업종에 해당되는 37개 기업, 자생력을 갖추고 도내지역에 전·후방 연관효과를 줄 수 있는 기업은 비금속광물업종 등의 47개 기업, 기타 3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함.

<표 V-1> 조사 대상 기업

구 분	업 종
바이오기업	· 음·식료업 등 37개사
자생력과 전·후방 연관효과를 줄 수 있는 기업	· 비금속광물업외 47개사
기타 기업	· 기타 제조업 3개사
합 계	· 87개사

3.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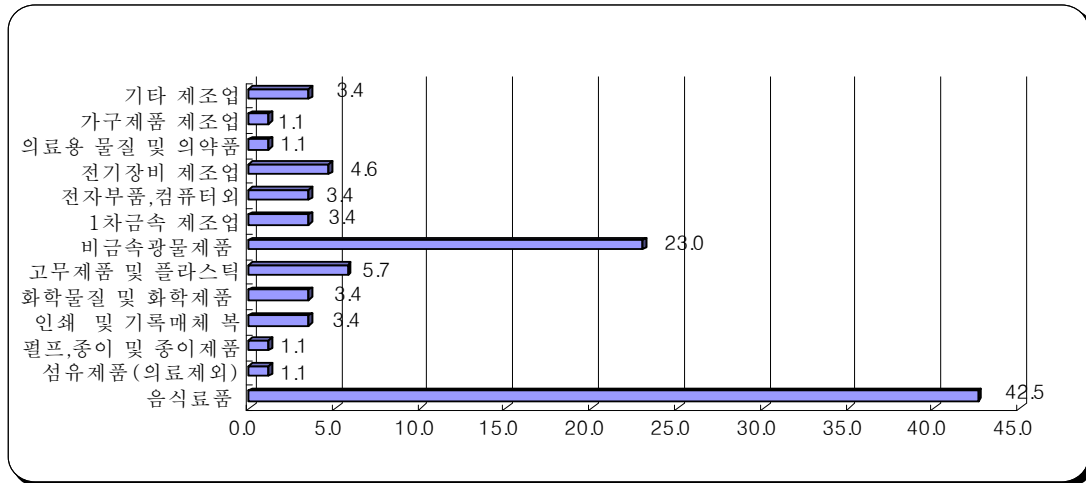
3-1. 설문 조사 내용

<표 V-2> 조사 설문 내용

구 분	세 부 항 목	비 고
회사개요	- 업체명 및 대표자, 설립년도, 매출액, 종업원수 - 주력업종, 연구인력, 주요생산품, 매출대비 연구개발 비중	8문항
내부경영현황	- 소재지 및 생산 형태, 가동률 및 가동률 추이 - 판매시장, 인력현황, 연구개발 및 자금조달 관련	15문항
기업환경 및 경영전략	- 기업환경 애로사항 - 향후 경영전략	11문항
개선방안	- 판매확대, 인력수급, 기술개발, 자금조달, 입지환경 - 기업활동 환경조성 대책 및 지원서비스 유형	10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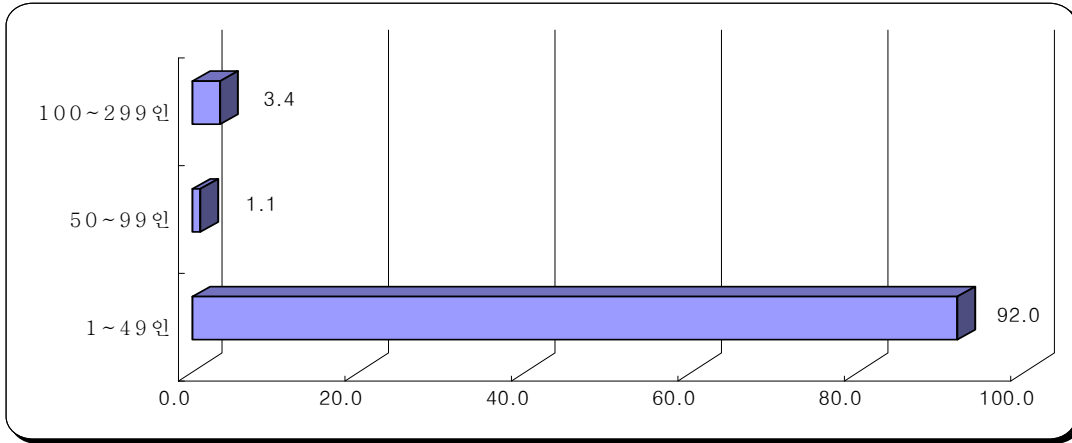
3-2. 기업 일반 현황

○ <그림 V-2>는 본 설문 응답업체의 업종별 구성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음식료품이 42.5%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비금속광물제품이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이 5.7%, 전기장비 제조업이 4.6%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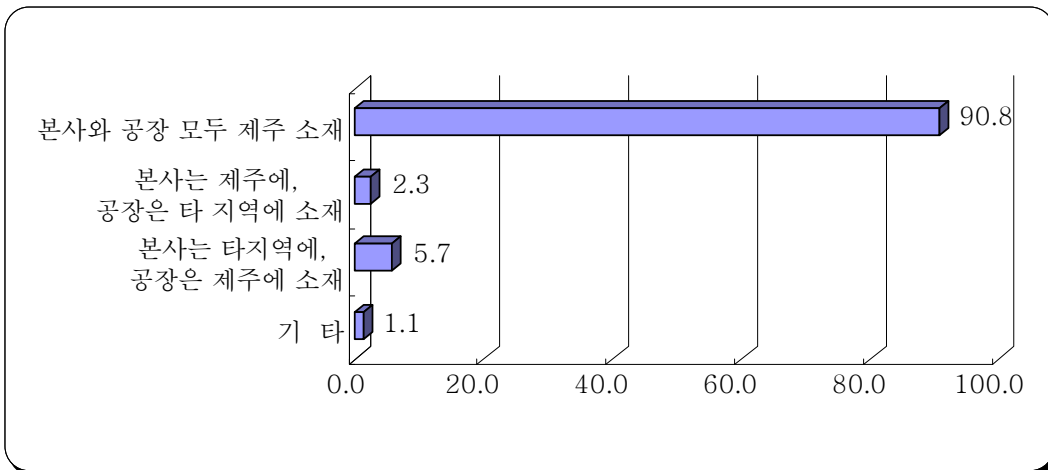
<그림 V-2> 업종별 현황

○ <그림 V-3>은 응답업체의 종업원수를 나타낸 것으로 응답업체의 92%가 종업원 1~49인 규모의 영세업체로 나타났으며, 50~99인 종업원수의 기업체는 1.1%이며, 응답업체의 3.4%만이 종업원수가 100~299인 업체로 조사됨.



<그림 V-3> 종업원수 현황

○ <그림 V-4>는 업체의 소재지를 나타낸 것으로 응답업체의 90%이상이 본사 및 공장 모두 제주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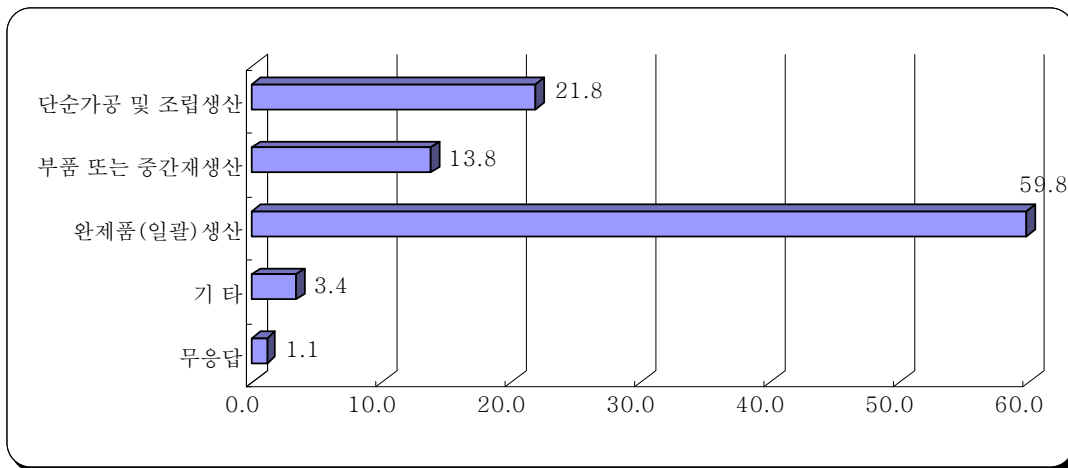


<그림 V-4> 소재지 현황

3-3. 기업 경영 현황

1) 생산 유형

- <그림 V-5>는 생산유형을 나타낸 것으로 응답업체의 59.8%가 완제품 생산을 하고 있으며, 단순가공 및 조립생산 업체의 경우는 21.8%, 부품 또는 중간재 생산업체는 전체의 13.8%를 각각 차지함.



<그림 V-5> 제조업체 생산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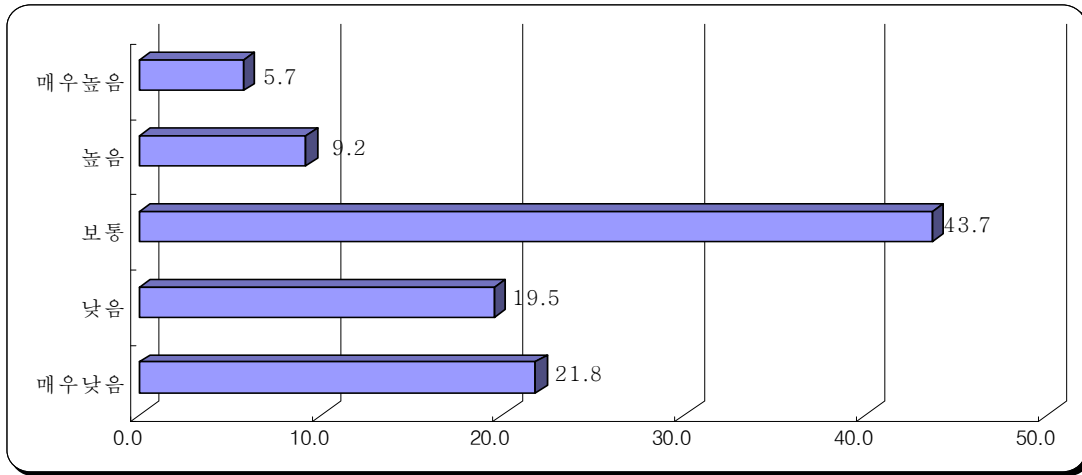
- <표 V-3>는 업종별 생산유형을 나타낸 것으로 완제품생산인 경우 섬유 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전기장비 제조, 1차금속,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순으로 나타남. 부품 또는 중간재 생산인 경우 펄프·종이 및 종이 제품, 가구제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단순가공인 경우는 1차금속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순으로 나타남.

<표 V-3> 업종별 생산 유형

구 분	단순가공 조립생산	부품또는 중간재생산	완제품 생 산	기타
음식료품 제조업	32.4	8.1	59.4	
섬유제품(의료제외)제조업			10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10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0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0.0	20.0	60.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5.0	15.0	55.0	15.0
1차금속 제조업	33.3		66.7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3	66.7	
전기장비 제조업		25.0	75.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00
가구제품 제조업		100		
기타 제조업	66.7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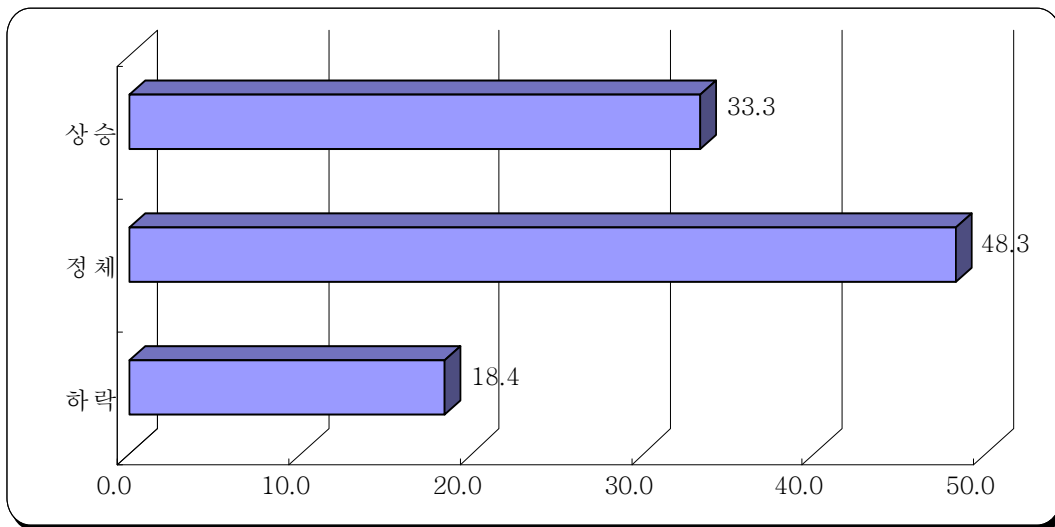
2) 가동률

- <그림 V-6>는 공장 가동률을 나타낸 것으로, 51개 응답업체인 58%만이 가동률이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가동률이 50% 미만인 업체도 19업체 (21.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V-6> 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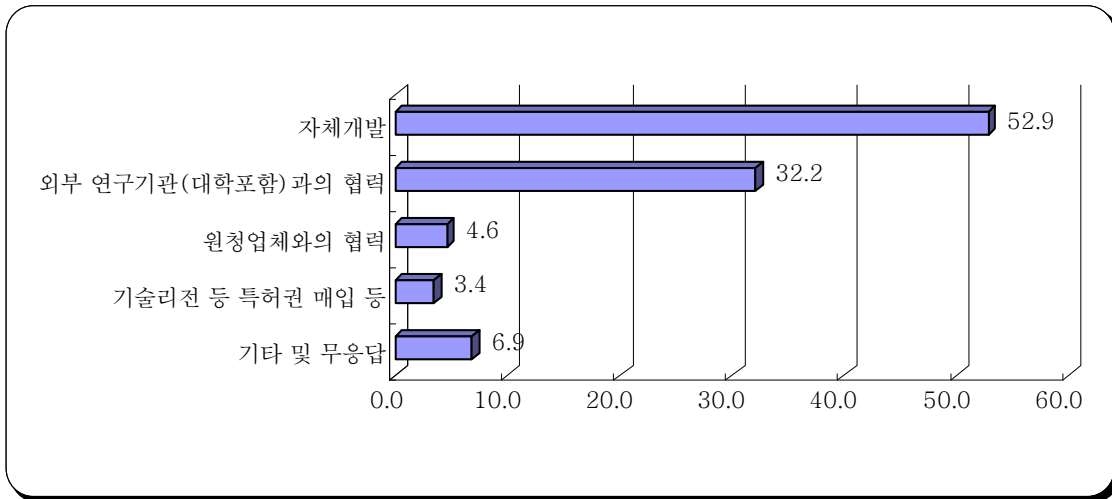
- <그림 V-7>은 최근 3년간 가동률 추세를 나타낸 것으로, 응답업체의 33.3%인 29개 업체만이 상승추세로 나타났으며, 66.7%인 58개 업체가 정체 및 하락률을 나타내 도내 제조업체가 운영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V-7> 가동률 추이(최근 3년간)

3) 연구개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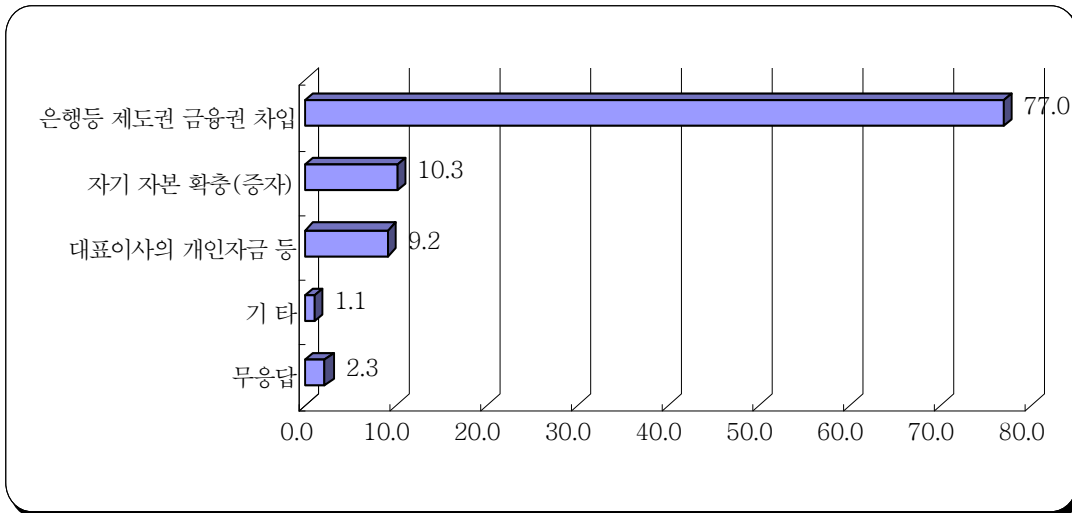
- <그림 V-8>은 연구개발의 유형을 나타낸 것으로 응답업체의 53%가 자체 개발을 하고 있으며, 외부연구기관(대학포함)과의 협력이 32%, 원청업체와의 협력 및 기술이전 등 특허권 매입 등이 각 4.6%, 3.4%로 나타남.



<그림 V-8> 연구 개발의 유형

4) 자금조달

- <그림 V-9>는 자금 조달 방법을 나타낸 것으로 응답업체의 77% 이상이 은행 등 제도권 금융권 차입인 것으로 응답해 은행 등 제도권 금융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 외 자기자본 확충이 10%, 대표이사 개인자금 등이 9.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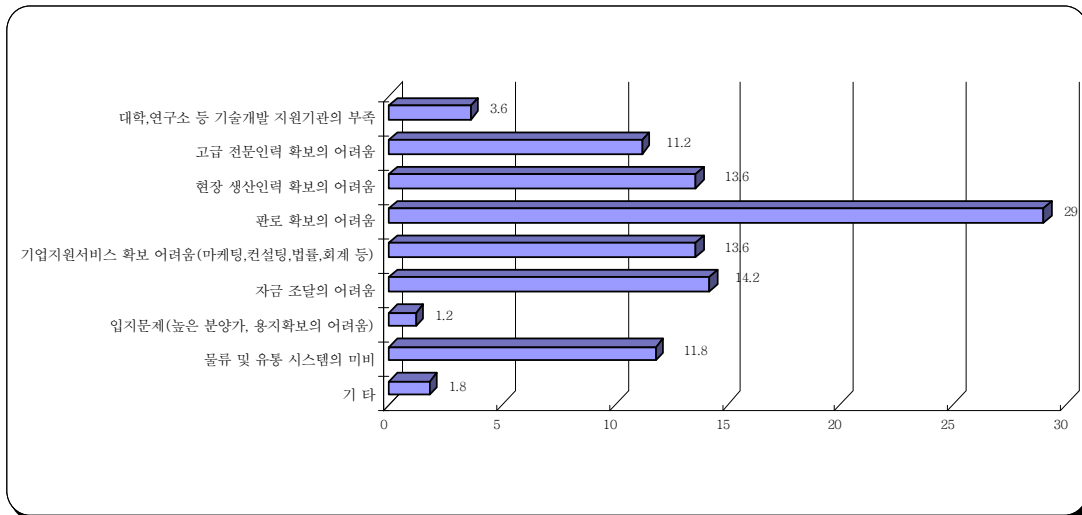


<그림 V-9> 자금 조달 방법

4. 경영환경의 문제점

4-1. 기업 경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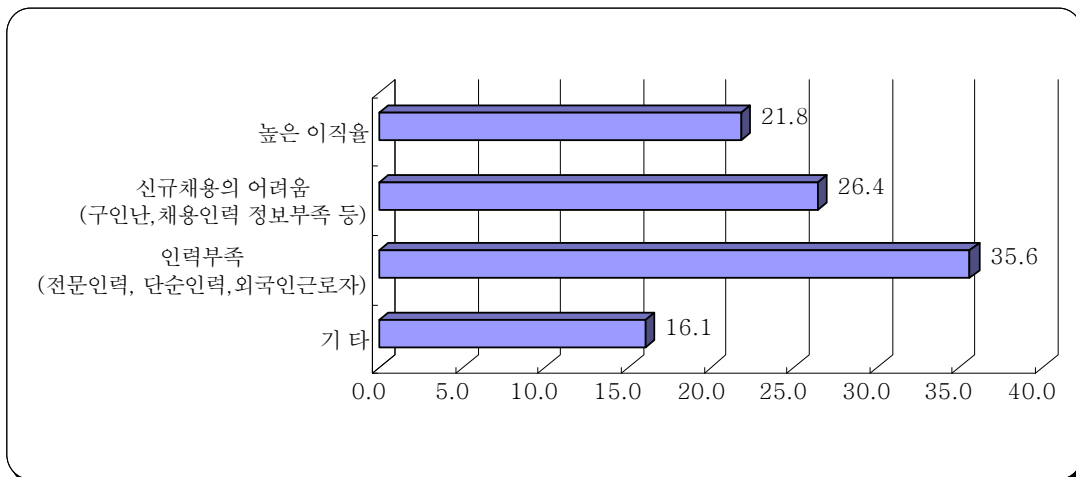
- <그림 V-10>은 기업 환경의 애로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응답업체의 29%가 판로 확보의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고급 전문인력 및 생산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24.8%, 자금조달의 어려움(14.2%), 기업지원서비스 확보의 어려움(13.6%)순으로 나타남.



<그림 V-10> 기업 환경의 애로사항

4-2. 인력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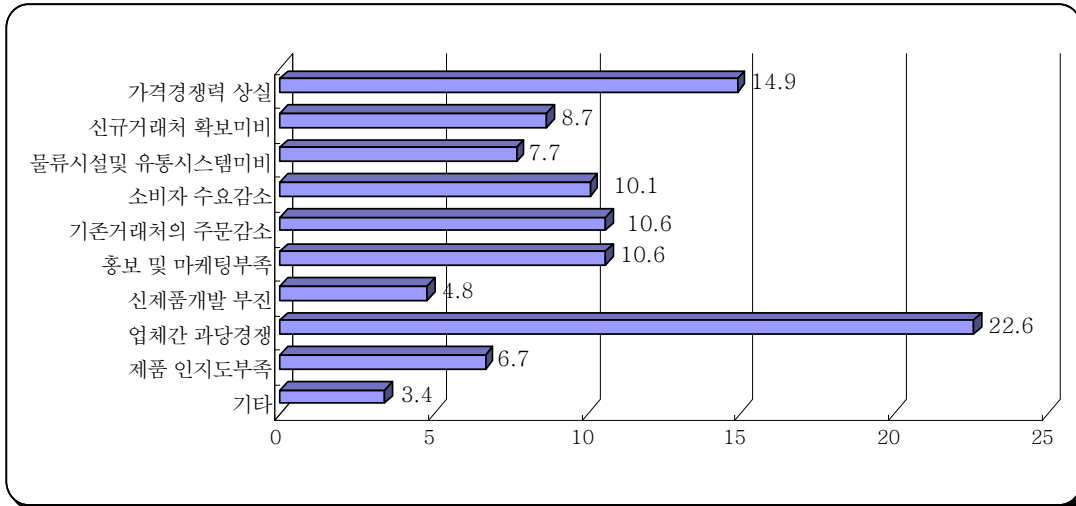
○ <그림 V-11>은 인력확보의 어려운 요인을 나타낸 것으로, 응답업체의 35.6%가 전문인력 및 단순인력, 외국인근로자 등과 같은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인난 및 채용인력 정보부족 등과 같은 신규채용의 어려움(26.4%)과 높은 이직률(21.8%)로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림 V-11> 인력 확보 어려움의 주요 원인

4-3. 판로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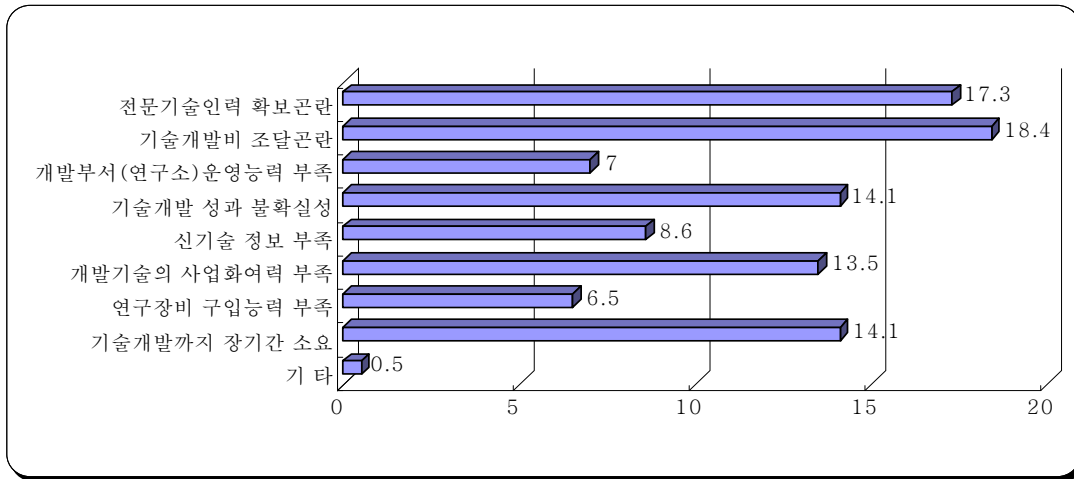
○ <그림 V-12>는 제품판매의 어려움에 대한 주요 원인을 나타낸 것으로, 응답업체의 22.6%가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격경쟁력 상실이 14.9%, 기존거래처의 주문감소와 홍보 및 마케팅부족이 각 10.6%를 나타냄.



<그림 V-12> 판매 어려움의 주요 원인

4-4. 기술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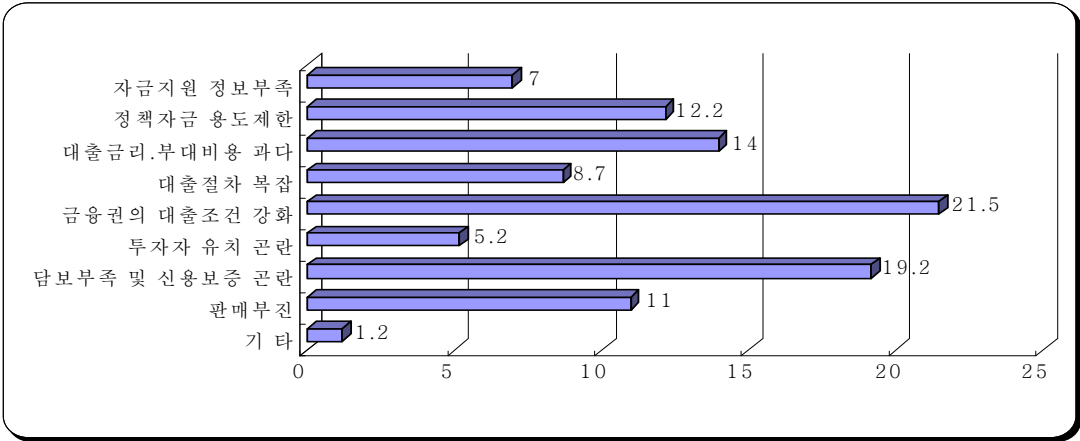
○ <그림 V-13>은 기술개발에 따른 어려운 요인을 나타낸 것으로, 응답업체의 18.4%가 기술개발비 조달 곤란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으며, 전문기술인력 확보곤란이 17.3%, 기술개발성과 불확실성과 기술개발까지 장기간 소요가 각 14.1%로 나타남.



<그림 V-13> 기술개발 어려움의 주요 원인

4-5. 자금 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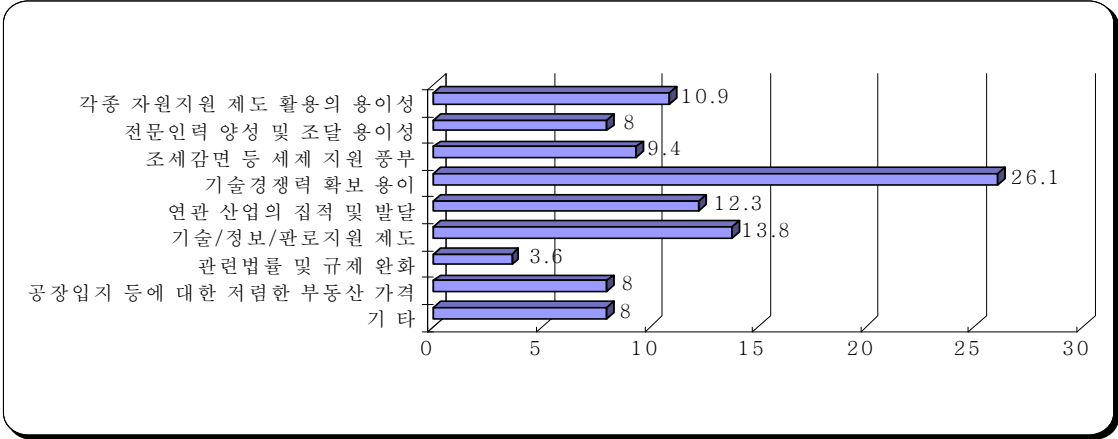
- <그림 V-14>는 자금조달에 따른 어려운 요인을 나타낸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응답업체의 77% 이상(<그림 V-9> 참조)이 자금조달을 위해 은행 등 제도권 금융권을 이용함을 알 수 있으며, 이용시 금융권의 대출조건 강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21.5%로 나타남.
 - 또한, 담보부족 및 신용보증 곤란이 19.2%, 대출금리 및 부대비용 과다가 14% 등 이와 같은 요인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조사를 통해 업체 대부분이 담보여력이 부족한 영세업체로 현재 제주자치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성장잠재력 등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한 금전채무 보증지원에 대해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참 조 : 그 외 도내 제조업체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은 <부록 3>과 같으며, 내용은 설문조사시 현장에서 직접 해당 업체의 대표 및 담당자들의 의견을 요점 정리하여 기술한 것임.



<그림 V-14> 자금 조달 어려움의 주요 원인

5. 제조업 업종 유지 요인

- <그림 V-15>는 기업이 향후 현재 업종을 유지하기 위한 요인을 조사한 것으로, 이는 도내 제조업의 자생력은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임.
- 제조업의 현재 업종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요인으로는 기술경쟁력 확보 용이성이 26.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술/정보/판로지원 제도의 용이성이 13.8%, 연관 산업의 집적 및 발달 12.3% 순으로 나타남.



<그림 V-15> 업종 유지 주요 요인

제 VI 장 제주형 제조업 활성화 방안

1. 도내 제조업체 지원정책

-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국내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는 300만개로 전체 사업체수의 99.8% 차지.
- 2000년 이후 한국은 고용·생산·부가가치 등에서 중소기업 역할이 증대되어 산업의 중심축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
- 도내 제조업체는 대기업이 전무한 대부분 중소기업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독립형 경영구조를 이루고 있음. 따라서 도내 제주형 제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로 작지만 강한 기업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본방향 및 역점 시책을 제시.

<기본방향>

-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경제 리딩 그룹 형성
- 경영환경 개선 및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강화

<역점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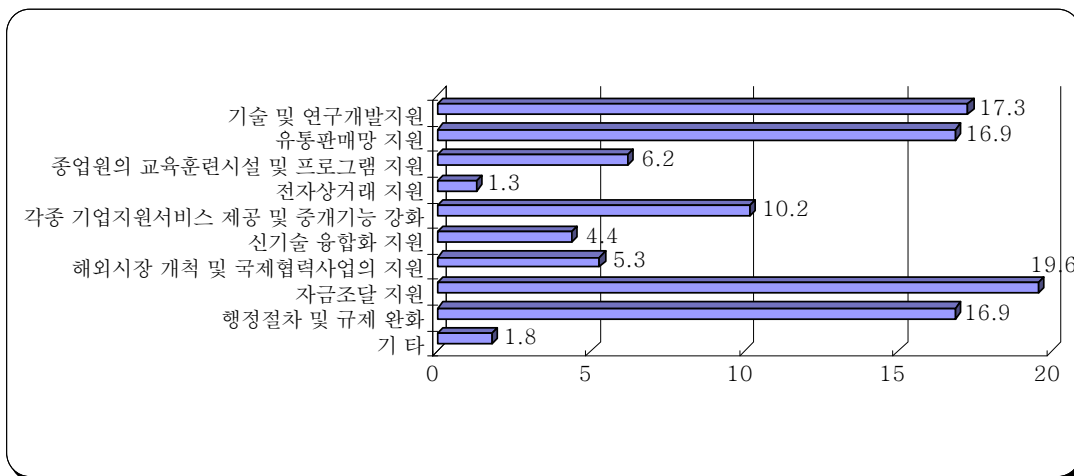
- 기술·경영혁신으로 성장유망 선도 기업군 육성
- 자금·경영, 창업·입지, 소상공인 등 분야별 경영환경 개선
- 지역 생산제품의 대외시장 진입능력 강화
- 지역 전략산업 육성 촉진
- 고객 중심의 행정 구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2. 제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요인

-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된 제조업 활성화 방안의 요인들은 다음과 같음.

2-1. 제조업 경영환경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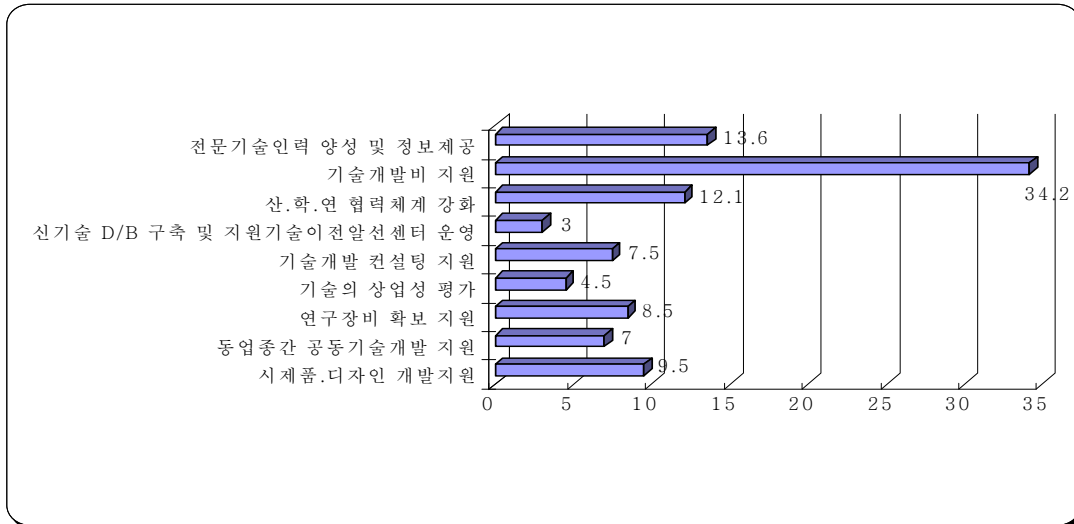
- <그림 VI-1>은 기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지원기관에 요구되는 주요 사안들로서, 응답업체의 19.6%가 자금조달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나타났으며, 기술 및 연구개발지원이 17.3%, 유통판매망 지원과 행정절차 및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각 16.9%로 나타남.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림 V-10> 참조) 관련 지원기관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판로 확보, 자금조달, 기술 및 연구개발, 행정절차 및 규제완화와 같은 지원 방안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VI-1> 기업환경 개선 위한 지원기관 주요 사안

2-2. 기술혁신역량 강화

- <그림 VI-2>는 제조업체의 신기술개발을 위해 관련지원기관에 요구되는 주요 사안들으로써, 응답업체 34.2%가 기술개발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꼽았으며,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정보제공이 13.6%,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12.1%로 나타남.



<그림 VI-2> 신기술개발 위한 지원기관 주요 사안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영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제주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함.
 - 2006년~2008년 상반기 현재 87개업체를 선정. 선정업체에 해외시장조사 및 전시박람회 참가에 우선 지원 및 홍보책자 발간 지원.
 - 기술·경영 지원이 필요한 도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관리 및 정보화 지도와 공정개선, 부품·소재개발기술,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 해외 규격인증, KS획득 및 ISO 지도 등으로 경쟁력 강화.
 - 도내 중소기업과 제주지역 연고 대기업간 자매결연 및 업무제휴, 대기업

- 유통망을 활용한 판로망 구축 등의 연계지원사업을 제주상공회의소 및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2007년도 도내 10개 중소기업을 선정, 현대자동차(주), 대림산업 등 대기업과 연계지원 중).
- 지역 내 대학과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기술을 개발하고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또한, 대학의 실험·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활용하여 기업·교수·학생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공동 참여하여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신기술디자인기술개발사업 등과 같은 중소기업 기술개발(R&D)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음.
 - 도내에서 생산되는 발효제품 특성화로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조업자, 전문가 등의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구성, 발효제품 연구 개발 및 육성 방안을 2008년 과제로 제시하여 추진중.
 - 제주특별자치도는 본사 소재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회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제품 포장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디자인대전”을 개최하여 우수디자인 발굴, 상품화 유도 및 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음.
 - 위와 같이 기술 및 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제주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표 VI-1>과 같음.

<표 VI-1> 중앙정부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 기술 경영혁신 정책

구 분	중앙정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기술·경영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개발 및 기술사업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역량에 따른 전략적 기술개발 지원 · 단계별 연계지원 통한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 · 수요자 중심 사업추진 및 성과평가 강화 · 한미 FTA타결에 따른 중소기업 R&D 지원강화 ○ 산업현장 중심의 산학협력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위한 산학협력 강화 · 혁신형 기업의 R&D활동 지원기반 강화 ○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 및 개선 통한 경영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지원 통한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 · 중소기업 CEO의 경영혁신 마인드 제고 · 서비스 연구개발 지원 경영혁신 촉진 · 정보화 통한 경영혁신 역량 강화 ○ 기업간 협력 통한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통한 기업간 상호 신뢰관계 구축 · 대·중소기업간 수직적 협력 강화 ·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강화 위한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유망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 1대1 중소기업 연계지원 사업추진 ○ 산·학 연계로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 산학협력실 설치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실효성 제고 · 제주형 발효식품 개발육성 클러스터화 ○ 디자인 지원 강화로 생산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통한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제품 포장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 제주디자인대전 개최

자료: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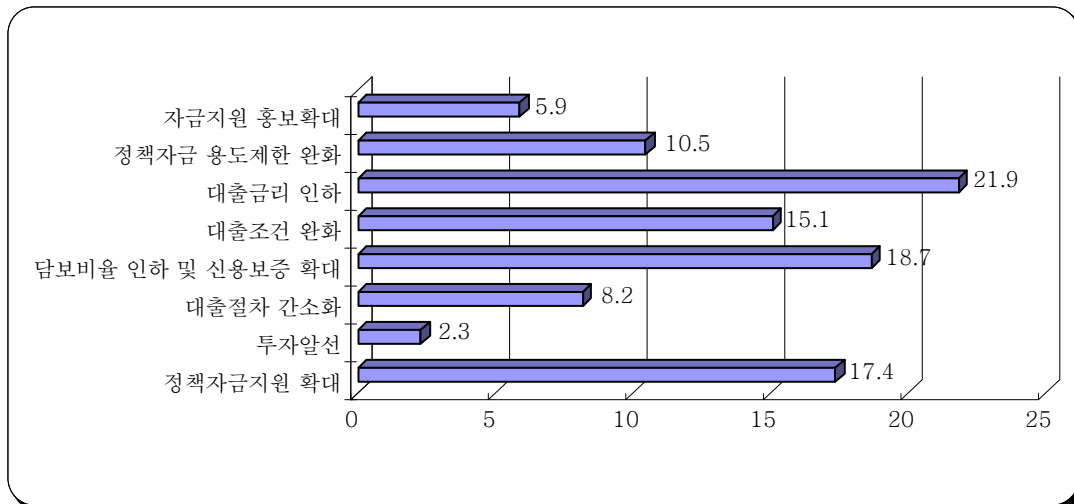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중소기업의 어려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도내 제조업체는 대부분 자체개발(52.9%)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그림 V-8> 참조)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기관의 기술개발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강화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부족한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인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 기술 개발 등에 철저한 사후관리 제도와 각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변화 추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3. 자금지원 정책 강화

- <그림 VI-3>은 자금조달을 위한 지원기관에 요구되는 주요 사안들로서, 응답업체의 21.9%가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지원을 꼽았으며, 담보비율 인하 및 신용보증 확대가 18.7%, 정책자금지원 확대가 17.4%, 대출조건 완화가 15.1% 순으로 나타남.



<그림 VI-3> 자금조달 위한 지원기관 주요 사안

- 정부 및 도내 지원기관에서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도내 중소기업체에 저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으로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금지원을 함.
 -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경영 여건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강화.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여성기업과 같은 우대

기업에 대해 금리 차등 적용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대출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금융부담 경감효과 기대.

- 담보능력은 없으나 성장 잠재력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금전채무 보증지원 등 보증 애로 해소. 또한 성장유망중소기업 등 우수기업에 대해 제조물책임(PL) 보험료 지원으로 제품결함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대비케 하여 안정적 경영지원.
- 기업구조 특성상 소기업·소상공인 등 많은 도내 영세 중소기업체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 이로 인해 창출 효과가 높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특화된 사업으로 도내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창출에 기여.
- 중소기업의 창업보조금 지원으로 창업촉진을 통한 산업 구조개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표 VI-2>는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제주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비교한 것임.

<표 VI-2> 중앙정부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

구 분	중앙정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자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시장보완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부족한 기술성·사업성 우수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 정책자금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등 금융안정망 확충지원 · 혁신형 기업 보증 확대 · 신용보증제도 지속 혁신 · 매출채권보험 지원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능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협력의제 발굴로 금융애로 해소 ·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신용관리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자금·경영 여건개선 경영안정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추천 ·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체계개선 · 획기적인 자금·신용보증제도 개선으로 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 보장 · 각종 기금 중 중소기업 지원자금 통해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 지원 · 담보 부족 등 보증애로 해소 · 소기업·소상공인 보증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강화 ·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범위 확대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 ○ 창업 및 입지 환경개선으로 지역 경제 활력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보육센터 역량 강화 및 청년창업 촉진 · 중소 제조업의 창업보조금 지원 · 농공단지 환경개선 및 운영활성화 ○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통한 경제 저변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강화 · 중소 유통업 경쟁력 강화 및 재래시장 활성화 · 골목상권 자체브랜드(PB) 상품 개발 지원 · 여성 및 장애인 기업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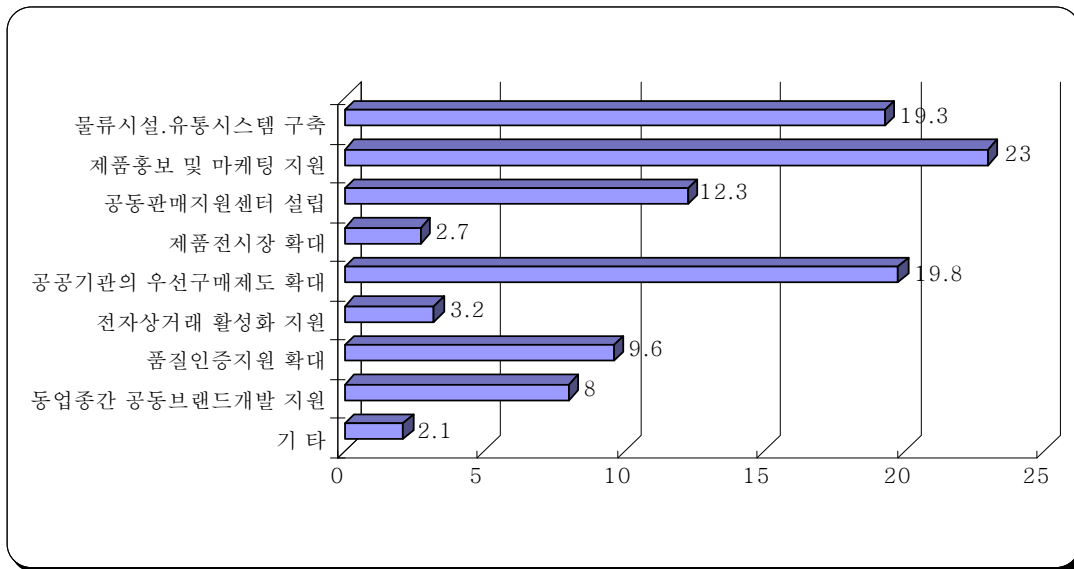
- 도내 제조업체의 자금조달시 어려운 요인으로 금융권의 대출조건 강화, 담보부족 및 신용보증 곤란, 대출금리 및 부대비용 과다 등(<그림 V-14> 참조)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기관의 자금지원에 대한 정책 개선 및 강화 필요.
- 위와 같이 도내 제조업체는 자금조달 대부분의 방법이 은행 등 제도권 금융권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큼.
-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권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도내 제조업체로서 금융권의 대출조건 강화와 담보여력 부족, 신용보증 곤란으로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지역 실정을 적극 반영한 자금지원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자체 등 지원기관에서는 대출조건 완화 및 금리 인하, 대출기간 확대와 같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도내 지자체 및 관련 지원기관에서는 중앙정부 및 타 중소기업 지원기관 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해 지원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기업체를 위한 정책자금의 운용 폭을 확대하여 경쟁력 확보 여건을 조성.
-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원제도에 대해 자금지원 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능력을 제고.

2-4. 판로확보 지원 정책 강화

- 업체의 제품판매 어려움의 원인으로 업체간 과당경쟁, 가격경쟁력 상실, 기존거래처의 주문 감소, 홍보 및 마케팅 부족 등(<그림 V-12> 참조)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기관에 요구되는 주요 사안들을 <그림 VI-4>와 같이 나타냄.

- 응답업체 중 23%가 제품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꼽았으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제도 확대가 19.8%, 물류시설 및 유통시스템 구축이 19.3%로 나타냄.



<그림 VI-4> 판로확보 위한 지원기관 주요 사안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제품 국내 판로기반 구축을 통한 역외 시장개척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지원함.
 - 도내 생산제품의 홍보와 직거래를 위한 상설전시판매장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제주상품의 인지도 제고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 대도시 판매전 및 각종 전시박람회에 참가 지원하여 시장개척과 홍보·구매상담 등을 촉진시킴. 도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내 상설전시판매장을 구축하여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등 전시판매 운영.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의거 지역내 공공기관들에 대해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물량을 확대 추진하여 안정적 판로 확대 도모.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시장수요 창출로 내수시장의 활성화 기대.

- 국제박람회,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시장조사,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등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 개발 확대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 <표 VI-3>은 판로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제주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비교한 것임.

<표 VI-3> 중앙정부기관 및 제주자치도의 중소기업 판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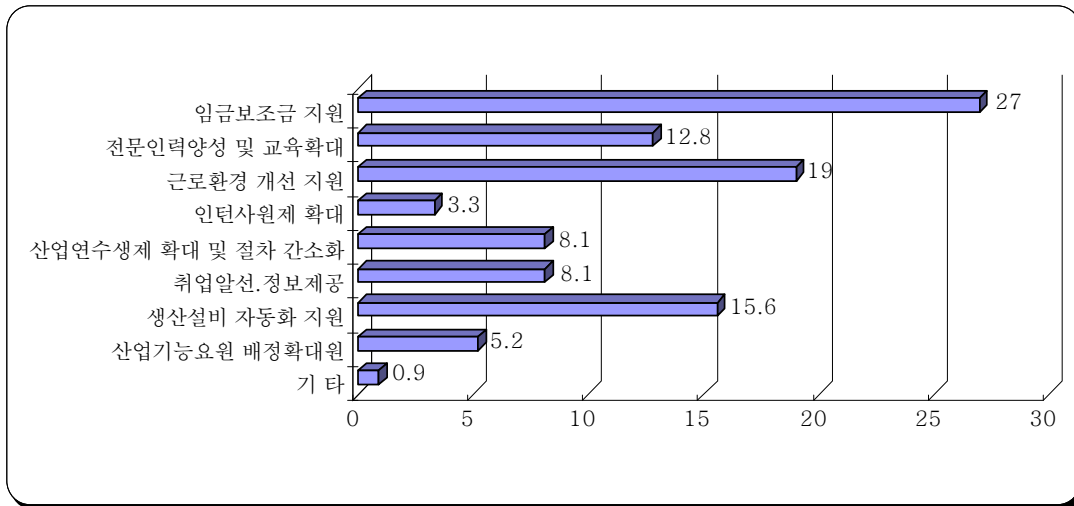
구 분	중앙정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판 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납품 중소기업 생산 및 판로 확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목표비율제 운용 통한 수주기회 확대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 확대 ○ 공공구매제도 정착 위한 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구매제도 홍보 및 활용능력 제고 ·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 활성화 · 직접생산 확인강화 통한 구매질서 확립 · 공공구매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자재 직접구매 실태 모니터링 확대 실시 ○ 마케팅 기반조성 통한 판로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CEO글로벌 마케팅 역량 강화 · 공동 A/S클센터 활성화 추진 · 중소기업 공동상표 개발·홍보 통한 마케팅 능력 제고 및 판로확대 지원 · 품질 우수 및 성장유망 제품 홍보 및 전시회 지원 ·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 및 홈쇼핑 벤더 기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 및 공동브랜드 등 마케팅 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쇼핑몰 e-jeu몰을 운영 ·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활성화추진 ·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 · 공동상표 ‘제주마썸’ 마케팅 지원 ○ 국내 판로 기반 구축 통한 역외 시장개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 구축 운영지원 · 공공구매 촉진으로 중소기업제품 시장수요 확대 · 역외시장 개척위한 전시·판매 지원 ○ 지역산업 해외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지원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 향후 도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능력 제고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하여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함.

- 도내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 및 가격담합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수제품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한 구축 여건 조성.
-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공동상표인 ‘제주마썸’과 같은 제품 인증제도를 더욱 확대 강화하여 품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소요비용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에 의거한 지역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및 기술우수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더욱더 안정적인 판로기반 구축.

2-5. 인력지원 방안

- 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조사된 요인인 전문인력, 단순인력, 외국인근로자 등과 같은 인력부족과 신규채용의 어려움 등(<그림 V-11> 참조)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지원기관에 요구되는 주요 사안들을 <그림 VI-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응답업체의 27%가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해 임금보조금 지원을 꼽았으며, 근로환경 개선 지원이 19%, 생산설비 자동화 지원이 15.6%, 전문 인력양성 및 교육확대가 12.8%로 나타남.



<그림 VI-5> 안정적 인력수급 위한 지원기관 주요 사안

○ <표 VI-4>는 인력수급 강화와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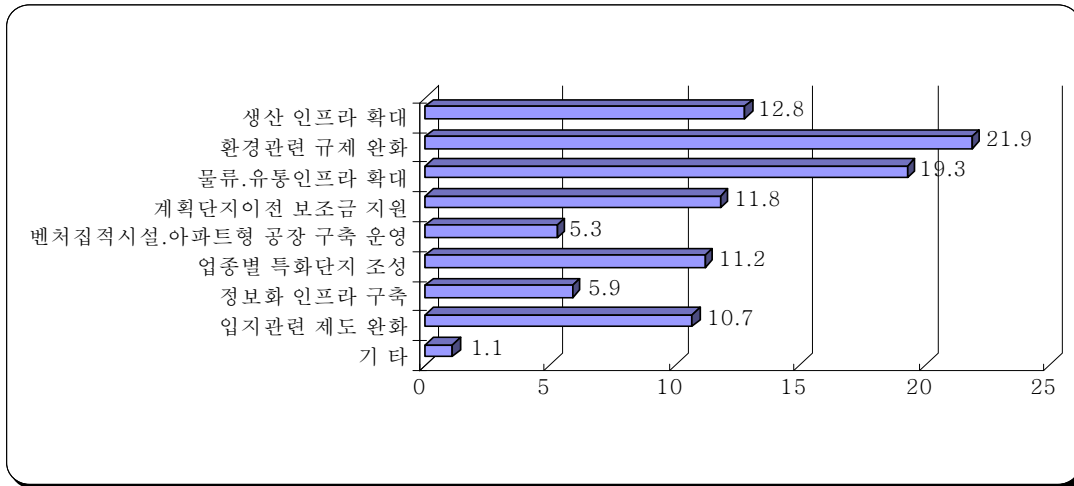
<표 VI-4> 안정적 인력수급 위한 지원기관 정책

구분	중앙정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인력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의 중소기업 현장체험 등 다양한 수단 통한 청년 기술인력 취업유도 및 홍보활동 추진 ○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인력공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능요원제도 및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으로 필요한 인력공급 · 맞춤형 훈련으로 인력양성 사업확대 및 기술인력 해외도입에 따른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연수 등으로 수요자 중심 교육훈련 활성화 · 업종·지역 특성 반영한 교육훈련 실시 ○ 중소기업의 근로·복지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주거안정 위한 지원 및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창업자금 지원 우대 	별도 지원정책 없음

- 도내 제조업체의 열악한 시설기반 및 근무환경으로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지원은 중앙정부기관의 정책만 있고 제주자치도의 별도 인력수급 강화에 관한 정책은 전무한 실정임.
- 지자체 및 관련 지원기관은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도내 제조업체의 인력수급실태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수립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인력수급실태를 반영한 수요기업체 중심의 기술 및 기능양성에 따른 훈련 및 지원체계를 조성하여야 할 것임.
- 도내 제조업종 중 특화업종과 연관된 지역 내 대학 및 관련연구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높은 이직률과 신규채용의 어려움 등과 같은 인력부족 해결 개선을 위한 근로자 복지환경 관련 자금 및 임금보조금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 여건 조성 필요.

2-6. 공장(사업장) 입지환경 개선방안

- <그림 VI-6>은 제주지역의 입지환경을 나타낸 것으로, 제조업체의 입지환경을 위해 관련기관에 요구되는 주요 사안들로서, 응답업체의 21.9%가 환경관련 규제 완화를 꼽았으며, 물류 및 유통인프라 확대가 19.3%, 생산 인프라 확대가 12.8%로 계획단지이전 보조금 지원 및 업종별 특화단지 조성이 각 11.8%, 11.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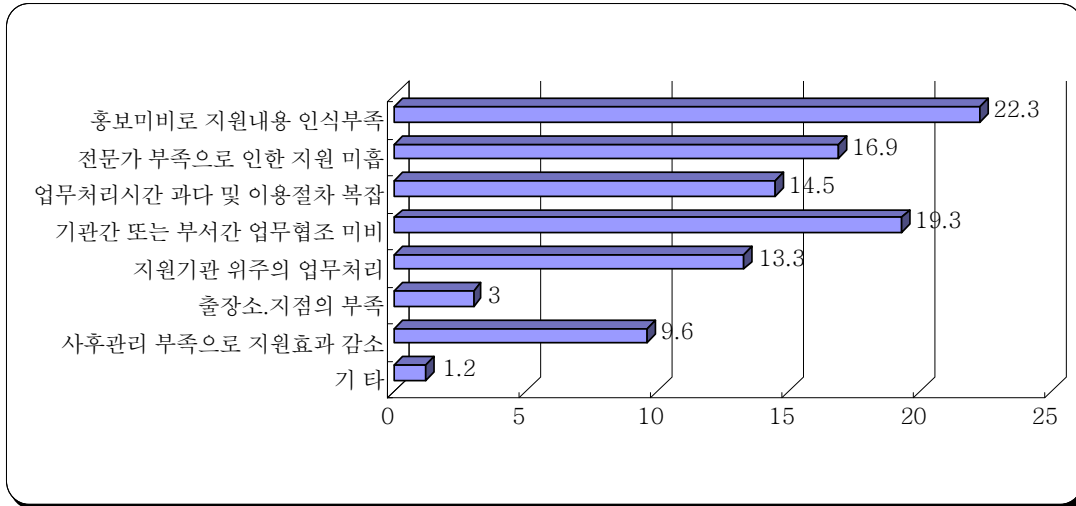
<그림 VI-6> 입지환경 개선 위한 지원기관 주요 사안

- 도내 입지환경은 물류비용 과다 및 인프라 구축 빈약 등 열악한 입지환경을 지님.
- 또한 섬 지역 특유의 입지환경과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제주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어지는 제조업종에는 불리한 입지조건임.
- 위와 같은 도내지역의 입지여건으로 인해 제조업분야에 활동을 제지하는 규제에 대한 재정비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7. 지원기관 기능강화 방안

- <그림 VI-7>은 도내 제조업체가 정책지원 관련기관 이용시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을 나타낸 것으로, 응답업체 22.3%가 홍보미비로 지원내용 인식 부족을 꼽았으며,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업무협조 미비가 19.3%,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지원 미흡이 16.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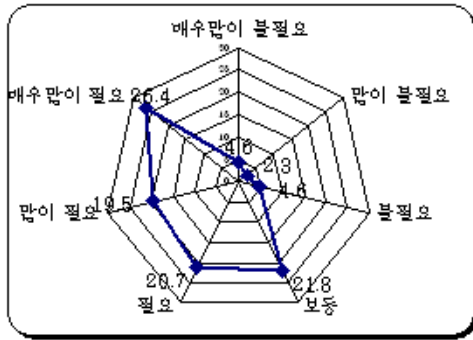
-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해 최대한 모든 기업체에 반영할 수 있는 홍보활동 전개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부서 및 지원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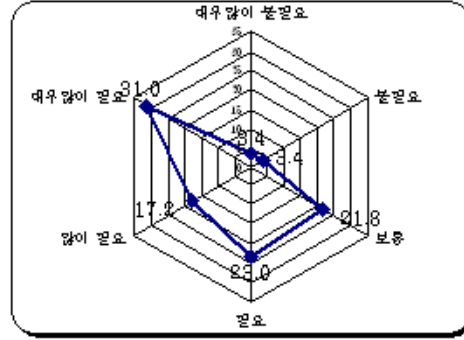
<그림 VI-7> 지원기관 이용 애로사항

3. 지원 서비스 수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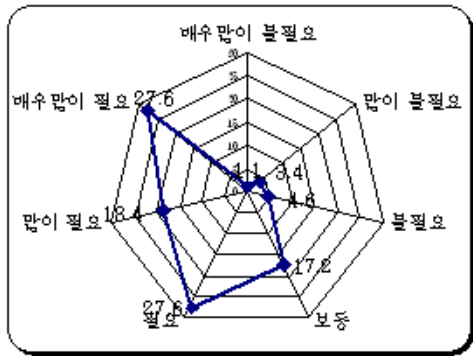
- <그림 VI-8>은 도내 제조업체를 위한 관련지원기관의 각종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를 나타냄.
- 제주자치도 및 관련지원기관의 각종 서비스 필요성에서는 응답업체의 71.3%가 정보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다음으로 협력중개 서비스는 73.5%, 기업컨설팅 서비스 66.7%, 협회 및 교류회 활동지원 서비스는 응답업체의 58.6%가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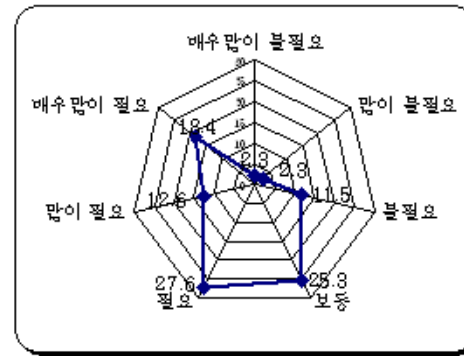
<기업컨설팅서비스 필요성>



<정보지원서비스 필요성>



<협력증개서비스 필요성>



<협회및교류회 활동지원서비스 필요성>

<그림 VI-8> 지원서비스 유형

- 위와 같은 결과는 지원기관의 정보제공 서비스 및 협력증개 서비스, 기업 컨설팅 서비스 등의 개선 및 확대가 더욱더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상기에서 논의된 관련지원기관의 지원서비스 수요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위하여 본 절에서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서비스에 대한 도내 제조업체들의 수요를 분석함.
- 본절의 분석을 위한 모형으로서 순위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이용했으며 이의 구체적 표현은 다음식과 같음.

$$\Pr(\text{policy} = m | x_i) = F(\tau_m - x_i\beta) - F(\tau_{m-1} - x_i\beta)$$

- 상기 식에서 좌변은 확률(Pr:Probability)로 표현한 기업활동의 필요 지원 서비스에 대한 개별기업들의 수요를 의미하며, 이는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문항의 34번에 해당함.
- <그림 VI-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설문문항 34번은 1) 기업컨설팅 서비스(경영, 마케팅 등), 2) 정보지원서비스(DB, 정책현황, 산업정보 등), 3) 협력중개 서비스(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연계), 4) 협회 및 교류의 활동지원(포럼, 세미나 등)으로 이루어져 총 4개의 모델을 구성함.
- 상기식의 우변은 지원서비스 정책에 대한 설명변수 혹은 독립변수에 해당하며 설문지 첫페이지에 있는 회사 개요와 여타 문항들로 이루어짐.

<표 VI-5> 변수내용

구분	변수명	설문문항	내용	관측수(Obs)
종속변수	consult	34-1)	기업컨설팅 서비스	87
	infogiving	34-2)	정보지원서비스	87
	link	34-3)	협력중개서비스	87
	action	34-4)	교류회 활동지원	87
독립변수	sales	회사개요	매출액	73
	employess	회사개요	종업원수	84
	resnumber	회사개요	연구인력	87
	mprod	회사개요	주요생산품	85
	rdrate	회사개요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	87
	facloca	2	본사, 공장 소재	87
	protype	3	생산품 형태	87
	capa	4	가동률의 고저	87
	oprte	5	가동률 추세	87
	trade	6	상품의 내수, 수출용 여부	87
	mkt	7	판매시장	87
	know	11	공동연구 개발 사업의 인지도 유무	87
	fundsorce	14	자금조달형태	87

- 종속 및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설문문항, 내용 그리고 관측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표 VI-5>에 요약되어 있음.
- <표 VI-6>은 종속 및 독립변수의 기술적 통계를 보여주고 있음.
- 상기 변수기술을 바탕으로 한 순위 로짓 분석(Ordered Logit Analysis)을 실시한 4개의 모형에 대한 주요 결과는 <표 VI-7>에 나타나 있음⁶⁾.

<표 VI-6> 변수의 기술적 통계

구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최소값(Min)	최대값(Max)
종속변수	conssult	5.161	1.613	1	7
	infogiving	5.368	1.487	1	7
	link	5.322	1.435	1	7
	action	4.851	1.467	1	7
독립변수	sales	57.464	119.851	0.2	900
	employess	21.012	34.293	3	277
	resnumber	1.494	4.894	0	45
	mprod	4.612	3.672	2	13
	rdrate	1.952	3.720	0	20
	facloca	1.172	0.575	1	4
	protype	2.425	0.910	0	4
	capa	2.575	1.106	1	5
	oprare	2.149	0.708	1	3
	trade	1.391	0.840	1	5
	mkt	1.840	1.044	1	4
	know	2.023	0.628	1	3
	fundsourc	1.506	1.098	0	5

6) 각 모델들의 완전한 추정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으며, 여기에서는 4개의 회귀추정 결과에 대해 통계적 신뢰도가 90% 이상인 경우만 요약 하였음.

- 총 4개의 모델은 종속변수가 무엇이나에 따라 구분되어짐.
 - 즉, 기업컨설팅 서비스(consult; 제1모델), 정보지원서비스(infogiving; 제2 모델), 협력중개서비스(link; 제3모델) 및 교류회 활동지원(action; 제4모델)에 따라 모델이 차별화 됨.
 - 제2모델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델들의 모형적합도가 그리 높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LR검정 통계량과 LR값의 비교를 통해 보면 모델 자체의 최저 적합도는 만족하고 있음.
 - 이는 설문조사 시 샘플수가 적음에 기인하는 것이라 사료됨.
- 모델1의 경우 기업컨설팅 서비스 수요가 업체들의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rdrate)”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VI-7> 순위 로짓분석 결과

구분	종속변수	독립변수	계수(Coefficient)	표준오차 (Standard Error)	z-value
모델1	conssult	rdrate	-0.141**	0.063	-2.24
모델2	infogiving	rdrate	-0.180***	0.067	-2.68
		capa	-0.619**	0.267	-2.32
		operate	1.107***	0.393	2.82
모델3	link	employees	-0.031**	0.014	-2.20
		operate	1.527***	0.407	3.75
		know	1.979***	0.464	4.27
모델4	action	employees	-0.022*	0.013	-1.65
		operate	1.214***	0.385	3.15
		mkt	0.953***	0.348	2.74

주) *: 90% 신뢰수준, **: 95% 신뢰수준, ***: 99% 신뢰수준.

- 정보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제조업체 가동률의 고저”, “제조업체 가동률의 추세”에 의존하고 있음(모델2).

- 제조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rdrate)”이 적고 “제조업체 가동률”이 낮을수록 정보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제조업체 가동률의 추세”가 상승할수록 정보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
- 협력중개 서비스에 대한 제조업체들의 수요는 “종업원수”, “가동률 추세” 및 “공동연구 개발사업의 인지도 유무”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모델3).
- “종업원수(employs)”가 적을수록 해당 제조업체의 협력중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의 가동률 추세”와 “공동연구 개발사업의 인지도”가 강할수록 협력중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모델4를 보면 포럼, 세미나 등과 같은 “협회 및 교류회 활동지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해당 제조업체의 “종업원수”, “가동률” 그리고 “판매시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종업원수”가 적을수록 해당 제조업체들의 상기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가동률”이 높을수록 “판매시장”이 넓을수록 “협회 및 교류회 활동지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

제Ⅶ장 결 론

- 본 연구는 환경 친화적이며 제조업종의 불리한 경영 여건 속에서도 현재 까지 자생적으로 성장한 업체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기업을 제주형 제조업으로 개념화 함.
- 제주형 제조업 활성화방안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는 크게 기업 환경개선, 기술혁신 역량강화 방안, 자금지원 방안, 판로확보 방안, 인력지원 방안, 공장입지환경 개선 방안 및 기업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본 연구의 정책제안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상기 요인에 대한 기술적 통계 요약은 <표 VII-1>에 나와 있음.

<표 VII-1>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요인에 대한 기술적 통계

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기업환경개선	자금조달지원확대 (19.6%)	기술 및 연구개발지원 (17.3%)	유통판매망지원/행정절차 및 규제완화(각 16.9%)
기술혁신역량 강화	기술개발비지원 (34.2%)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정보제공(13.6%)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12.1%)
자금지원정책	대출금리인하 21.9%	담보비율인하 및 신용보증확대(18.7%)	정책자금지원 확대 (17.4%)
판로확보	제품홍보 및 마케팅지원(23%)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확대(19.8%)	물류시설 및 유통시스템구축(19.3%)
인력지원	임금보조금지원 (27%)	근로환경개선 (19%)	생산설비 자동화 (15.6%)
공장입지환경	환경관련 규제완화 (21.9%)	물류 및 유통인프라확대 (19.3%)	생산인프라 확대 (12.8%)
기업서비스 필요성	정보지원필요 (71.3%)	협력증개필요 (73.5%)	기업컨설팅 필요 (66.7%)

-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시되어진 정책 대안은 다음과 같음.

- 기업환경 개선
 - 본 연구의 설문에 의거하여 관련 지원기관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판로 확보, 자금조달, 기술 및 연구개발, 행정절차 및 규제완화와 같은 지원 방안을 더욱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방안
 - 도내 제조업체는 대부분 자체개발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기관의 기술개발비 지원을 강화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또한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 기술 개발 등에 철저한 사후관리 제도와 각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변화 추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자금지원정책
 - 본 연구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권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도내 제조업체로서는 금융권의 대출조건 강화와 담보여력 부족, 신용보증 곤란으로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음.
 - 따라서 지역 실정을 적극 반영한 자금지원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자체 등 지원기관에서는 대출조건 완화 및 금리 인하, 대출기간 확대와 같은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판로 확보
 - 향후 도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능력제고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하여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
 - 도내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 및 가격담합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수제품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대한 구축 여건을 조성.

-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공동상표인 ‘제주마썸’과 같은 제품 인증제도를 더욱 확대 강화하여 품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소요비용 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에 의거한 지역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및 기술우수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더욱더 안정적인 판로기반 구축 여건 조성에 노력을 경주해야 함.

○ 인력지원방안

- 도내 제조업체의 열악한 시설기반 및 근무환경으로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지원은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관련 지원기관은 위와 같은 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도내 제조업체의 인력수급실태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수립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공장(사업장) 입지환경 개선방안

- 도내 입지환경은 빈약한 인프라 시설 및 그로 인한 과도한 물류비용으로 열악한 입지환경을 지님.
- 또한, 섬 지역 특유의 입지환경과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제주지역의 특수성은 자칫 환경보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제조업의 특성과 상충되는 면이 있음.
- 위와 같은 도내지역의 입지여건으로 인해 제조업분야의 활동에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으나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에 입각하면 개발과 환경보전이 반드시 상충적인 관계일 수 만은 없음.
-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입각하여 제조업 또한 어느 정도 도내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나친 규제에 대한 재정비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제주도내 제조업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분석
 - 각종의 지원서비스 정책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되어질 경우 바람직한 맞춤형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본 연구의 “지원정책 수요 분석”에 따르면 “기업컨설팅 서비스 수요”의 경우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낮은 연구 개발비로 제약을 받고 있는 제조업체에 상기 지원정책의 제공이 업체의 동기부여에 상대적으로 더욱 유효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음.

- 더욱 적절하고 정확한 정책 수요분석을 위하여 설문지 충분한 샘플 확보와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도의 정책발굴이 필요함.

■ 참고문헌

- 강법식·김덕모, 기업관계자가 본 광주·전남의 기업유치와 투자환경, 국토연구 제49권 39-54(2006).
- 고태호, 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방향 설정(2006).
- 곽철홍, 벨지움 Liège지방의 산업단지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6권 제1호(2003).
- 김경희·이선영·김성주·김동욱, 첨단제조업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부산발전연구원(2007).
- 김영표, 경남의 기업투자환경 실태와 발전방안-기업하기 좋은 경남만들기 정책, 경남발전연구원(2007).
- 김요한, 대구지역 도심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방안-영남지역발전연구(2007).
- 박재곤·이원빈, 기업의 지방투자 실태와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2005).
- 변용환, 제조업 투자유치 연구-강원도를 중심으로, 강원발전연구원(2006).
- 이광국, 부산의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기업유치와 지정가능성 연구, 부산발전연구원(2005).
- 이권형·박종민, 인천지역 지방산업단지의 실태와 혁신 방안, 인천발전연구원(2005).
- 이삼주, 지방세 감면의 효과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제5권 제1호(2000).
- 이원빈,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의 경쟁력 분석, KIET산업경제(2006).
- 조영석, 산업단지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형성 전망과 과제-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사례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2005).
- 최명희·조계근·변용환,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세수 증대효과,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제7권 제3호(2006).
- 최백렬·박광성·김석진,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전략-전북지역 중심으로. 국제경영리뷰 제10권 제1호(2006).
- 최영출, 영국의 지역개발에 있어서 외국기업유치전략-북잉글랜드개발청을 중심으로, 충북개발연구원(1998).

통계청, 2005~2006년 광업·제조업통계조사.

한국은행, 2006 제주지역 기업경영분석.

홍형득,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로서의 입지여건과 시범사업의 효과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17권 1호(2008).

<http://anews.icross.co.kr>

<http://www.newswire.co.kr>

<http://www.google.co.kr>

제주특별자치도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No. _____

안녕하십니까?

저희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도내 제조업 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제조업은 농수산물의 1차 가공을 위주로 한 업종과 비금속광물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용,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첨단 제조업 및 고용친화적 기업의 수가 미미하거나 규모가 영세하여 도내 산업구조간 불균형을 초래해 왔습니다. 또한 도내 생산제품의 판매 물류비용 이외에도 원자재 외부조달 비용 및 제주산 원료의 타지역 가공 물류비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요인은 제주지역의 제조업 발전을 제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제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기 맥락에서 제주소재 제조업체들의 경영현황, 향후 사업계획 조사, 지원정책 수요조사를 통하여 제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언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결과는 컴퓨터로 처리되며 개인의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오로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조사주관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허 향 진

연구 책임자 : 김 현 철 박사

(T.726-6148, 010-6804-1228)

I. 다음은 회사개요 및 경영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빈 칸에 알맞은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사개요(2007년 12월말 기준)

업체명/대표자		설립년도		
매 출 액	억원	종업원수	총: 명	사무직: 생산직: 기 타:
주력업종		연구인력	명	
주요생산품		매출액중 연구개발비 비중	%	

2. 귀사의 본사 및 공장은 어디에 소재합니까?

- ① 본사와 공장 모두 제주 소재 ② 본사는 제주에, 공장은 타 지역에 소재
 ③ 본사는 타 지역에, 공장은 제주에 소재 ④ 기타(기입:)

II. 다음은 내부 경영현황에 관한 내용으로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것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사의 생산품은 다음중 어느 형태에 속합니까?

- ① 단순가공 및 조립생산 ② 부품 또는 중간재생산
 ③ 완제품(일괄) 생산 ④ 기타(기입:)

4. 귀사의 가동률(정상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실적)은 어떠하십니까?

매우 낮음(50% 이하) <-----> 보통임(70~90%) <-----> 매우 높음(100%)
 ① ② ③ ④ ⑤

5. 귀사 가동률의 최근 3년간 추세는 어떠하십니까?

하 락 <-----> 정 체 -----> 상 승
 ① ② ③

6. 귀사의 생산품은 내수용입니까? 수출용입니까?

전량 내수 시장 <-----> 수출비중(50%) <-----> 전량 수출용
 ① ② ③ ④ ⑤

30. 귀사의 신기술개발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및 관내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지 3가지 이내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정보제공 ② 기술개발비 지원
- ③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④ 신기술 D/B 구축 및 지원기술이전알선센터 운영
- ⑤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 ⑥ 기술의 상업성 평가
- ⑦ 연구장비 확보 지원 ⑧ 동업중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 ⑨ 시제품·디자인 개발지원 ⑩ 기타(기입:)

31. 귀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지 3가지 이내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자금지원 홍보확대 ② 정책자금 용도제한 완화 ③ 대출금리 인하
- ④ 대출조건 완화 ⑤ 담보비율 인하 및 신용보증 확대 ⑥ 대출절차 간소화
- ⑦ 투자 알선 ⑧ 정책자금지원 확대 ⑨ 기타(기입:)

32. 귀사의 공장(사업장)입지 환경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3가지 이내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생산 인프라 확대 ② 환경관련 규제 완화 ③ 물류·유통인프라 확대
- ④ 계획단지이전 보조금 지원 ⑤ 벤처집적시설·아파트형 공장 구축 운영
- ⑥ 업종별 특화단지 조성 ⑦ 정보화 인프라 구축 ⑧ 입지관련 제도 완화
- ⑨ 기타(기입:)

33. 제주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할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3가지 이내로 체크(√)하여 주십시오.

- ① 기술 및 연구개발지원 ② 유통판매망 지원
- ③ 종업원의 교육훈련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④ 전자상거래 지원
- ⑤ 각종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중개기능 강화 ⑥ 신기술 융합화 지원
- ⑦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⑧ 자금조달 지원
- ⑨ 행정절차 및 규제 완화 ⑩ 기타(기입:)

34. 다음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서비스의 유형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 중 제주자치도 및 유관 기관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필요성을 각 항목별로 표시해 주십시오.

내 용		불필요 <.....> 필 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기업컨설팅서비스(경영, 마케팅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정보지원서비스(DB, 정책현황, 산업정보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협력중개서비스(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연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협회 및 교류회 활동지원(포럼, 세미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5. 제주자치도나 중소기업 지원기관(단체)에 건의하실 내용이나 기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간략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 입	
-----	--

- 설문에 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부록 2. <회귀분석 추정결과표>

Model 1

Number of obs = 72
 LR chi2(13) = 13.80
 Prob > chi2 = 0.3882
 Pseudo R2 = 0.0551

Log likelihood = -118.32159

consult	coef.	Std. Err	z	P> z	[95% Conf. Interval]	
sales	.0012106	.0018263	0.66	0.507	-.002369	.0047901
employees	-.0203837	.0130052	-1.57	0.117	-.0458735	.0051062
resnumber	-.0501589	.0404262	-1.24	0.215	-.1293928	.0290749
mprod	-.0251589	.0618217	-0.41	0.684	-.1463581	.0959785
rdrate	-.1410417	.0628461	-2.24	0.025	-.2642179	-.0178655
facloca	.1210053	.436556	0.28	0.782	-.7346287	.9766393
protype	-.0768423	.2752083	-0.28	0.780	-.6162407	.462556
capa	-.095726	.2491861	-0.38	0.701	-.5841218	.3926697
oprte	.6162101	.3790457	1.63	0.104	-.1267059	1.359126
trade	.0300944	.4059028	0.07	0.941	-.7654605	.8256494
mkt	.3628448	.3316011	1.09	0.274	-.2870814	1.012771
know	.3633379	.3887468	0.93	0.350	-.3985917	1.125268
fundsource	.2065089	.2442256	0.85	0.398	-.2721643	.6851822
cut1	-1.193571	1.323067			-3.786736	1.399593
cut2	-.7618819	1.29231			-3.294763	1.771
cut3	-.1498068	1.266554			-2.632207	2.332593
cut4	1.348022	1.257673			-1.116971	3.813016
cut5	2.250849	1.271243			-.2407418	4.74244
cut6	3.278897	1.304417			.7222868	5.835507

Model 2

Number of obs = 72
 LR chi2(13) = 21.39
 Prob > chi2 = 0.0655
 Pseudo R2 = 0.0934

Log likelihood = -103.86277

inforgiving	coef.	Std. Err.	Z	P> Z	[95% Conf. Interval]	
sales	.0017259	.0019302	0.89	0.371	-.0020573	.0055091
employees	-.0236568	.0135227	-1.75	0.080	-.0501607	.0028471
resnumber	.0018769	.0413996	0.05	0.964	-.0792648	.0830186
mprod	-.0006256	.0653137	-0.01	0.992	-.1286381	.1273869
rdrate	-.1795715	.0669398	-2.68	0.007	-.3107711	-.048372
facloca	.156498	.4656491	0.34	0.737	-.7561576	1.069153
protype	-.4332029	.2898278	-1.49	0.135	-1.001255	.134849
capa	-.6186176	.2668854	-2.32	0.020	-1.141703	-.0955318
oprate	1.106977	.3926642	2.82	0.005	.3373691	1.876584
trade	.0474687	.4085301	0.12	0.907	-.7532356	.8481729
mkt	.2408219	.3327421	0.72	0.469	-.4113406	.8929845
know	.3775312	.3899629	0.97	0.333	-.3867821	1.141845
fundsource	.069441	.2557654	0.27	0.786	-.4318501	.570732
cut1	-3.117497	1.42865			-5.9176	-.3173934
cut2	-2.378365	1.369059			-5.061671	.3049419
cut3	-.7205535	1.34066			-3.3482	1.907093
cut4	.5049845	1.347558			-2.13618	3.146149
cut5	1.474081	1.357512			-1.186595	4.134756

Model 3

Number of obs = 72
 LR chi2(13) = 38.61
 Prob > chi2 = 0.0002
 Pseudo R2 = 0.1595

Log likelihood = -101.69968

link	coef.	Std. Err.	Z	P> Z	[95% Conf. Interval]	
sales	.0028166	.0019734	1.43	0.154	-.0010513	.0066845
employees	-.0313808	.0142415	-2.20	0.028	-.0592936	-.003468
resnumber	-.0307664	.0441996	-0.70	0.486	-.117396	.0558633
mprod	.295688	.0711699	0.42	0.678	-.1099218	.1690593
rdrate	-.1088811	.0695729	-1.56	0.118	-.2452415	.0274793
facloca	.1725208	.4963682	0.35	0.728	-.800343	1.145385
prototype	.1055021	.2799363	0.38	0.706	-.443163	.6541672
capa	-.5530174	.2773743	-1.99	0.046	-1.096661	-.0093737
operate	1.527454	.4070364	3.75	0.000	.7296772	2.325231
trade	-.1470898	.4242214	-0.35	0.729	-.9785485	.6843688
mkt	.456997	.3687635	1.24	0.215	-.2657663	1.17976
know	1.979301	.4635678	4.27	0.000	1.070725	2.887877
fundsource	-.2020274	.2798613	-0.72	0.470	-.7505455	.3464907
cut1	.835775	1.659623			-2.417027	4.088577
cut2	2.35488	1.433334			-.4544019	5.164163
cut3	3.200073	1.395681			.4645879	5.935557
cut4	4.925279	1.466676			2.050647	7.799911
cut5	6.485513	1.558163			3.431569	9.539457
cut6	7.713699	1.611195			4.555816	10.87158

Model 4

Number of obs = 72
 LR chi2(13) = 24.82
 Prob > chi2 = 0.0244
 Pseudo R2 = 0.1003

Log likelihood = -101.69968

action	coef.	Std. Err.	Z	P> Z	[95% Conf. Interval]	
sales	.0014701	.0018838	1.31	0.190	-.001222	.0061622
employees	-.0218257	.0132548	-1.65	0.100	-.0478046	.0041531
resnumber	-.462974	.0431931	-1.07	0.284	-.1309543	.0383596
mprod	.925773	.0666349	1.39	0.165	-.0380247	.2231792
rdrate	-.881053	.0737817	-1.19	0.232	-.2327148	.0565042
facloca	-.0445493	.4289085	-0.10	0.917	-.8851944	.7960959
prototype	.1189931	.2785914	0.43	0.669	-.427036	.6650222
capa	-.3767236	.2577053	-1.46	0.144	-.8818166	.1283694
operate	1.214012	.3850497	3.15	0.002	.4593284	1.968695
trade	-.4749582	.3876989	-1.23	0.221	-1.234834	.2849177
mkt	.953291	.34846	2.74	0.006	.2703219	1.63626
know	.3728585	.4104429	0.91	0.364	-.4315948	1.177312
fundsource	-.2552093	.2573059	-0.99	0.321	-.7595196	.2491011
cut1	-.7818491	1.445465			-3.614908	2.05121
cut2	-.0436486	1.357473			-2.704248	2.61695
cut3	1.283685	1.301939			-1.268069	3.835439
cut4	2.902245	1.321249			.312645	5.491845
cut5	4.369062	1.38387			1.656727	7.081398
cut6	5.344748	1.425879			2.550075	8.13942

■ 부록 3. < 도내 제조업체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

도내 제조업체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기업체 조사No.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인 워크샵을 통해 실질적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야 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지원 부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산업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바람.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비용 지원 및 원자재 가격.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 및 BTL사업 유치시 제주도내 업체들의 생산제품 구매 요망. · 농공단지 업체들 특혜축소하고 제주도내 업체들의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 확대요망. ·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관급자재 수의 계약을 위해 건물 임대 입주하여 형식적인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음.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 금리의 탄력적인 운용이 요망됨.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금 대출금액을 상향조정요망.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를 유동적으로 완화했으면 함.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담회 또는 건의사항이 실제 현장에 집행되는 기회 저조.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사업에 신규 진출하여 HACCP를 추진하고 있는데 4~5억이 소요되는 이 인증 절차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이 없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지원 바람.

기업체 조사No.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 개발 자금 지원. · 신제품 개발시 홍보지원.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비 지원방안 검토. · 전문기술인력 채용방안 지원검토.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자문 활동과 수출의 활성화에 대한 도의 행정적·금융적 지원이 시급.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지원 기한이 짧다. 기한을 늘려주었으면 함.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제조업에 HACCP제도 시행토록 하는데 시설 설치비가 많이 드는데 자금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음.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적인 교육이나 세미나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나 정책필요.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및 업종 추가시 지역주민 민원해소.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품질 인증서 관련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은 질과 관계없이 고정비용 부담으로 더욱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에서 비용지원 및 KS심사제도 폐지 및 공영화 하였으면 함.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금 지원 확대.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조건 완화 및 간소화.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업체에 현실화된 일관된 정책을 요구하며 정책자금의 은행에서 대출조건 완화를 필요로 함.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 및 기술개발지원 확대 필요.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전문 인력이 필요.

기업체 조사No.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연구 지원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 원자재 구입시 중소기업 보증 확대. · 제주도내 중소유망기업 확정 확대 및 활성화. · 중소기업 지원금 이율 2.5%대로 확립.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기 여건 악화로 인해 본 업체는 수출용 제품에 집중적 투자를 하고 있는 바 수출관련하여 지금도 지원은 잘되고 있지만 체계적 지원을 해주었으면 함.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관 내에 전문인력의 확보가 많이 되었으면 함.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지역 판매망 확보에 물류비 비중이 매우 크게 발생하는 사항이 있어 물류비 지원에 많은 관심 바람.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업종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 확보의 문제가 큼.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공동판매 브랜드인 제주마썸, 제이어스 등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 적극 홍보하여서 입점이 확대되고 판매가 잘 이루어지도록 판매 직원이 1명 정도 상주하였으면 함.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 제조업체의 생산제품이나 그 업체에 대한 특성을 잘 아는 담당공무원들이 부서이동으로 인하여 지원서비스가 다소 약화되는 점이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담당하였으면 함.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기능 확대 지원 및 활성화 방안 강구.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활한 자금지원.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유지하고 있는 업종은 제주지역 산업구조상 필요에 의하여 창업되어 산업의 근간으로서 도·소매업의 운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등 파급효과는 지대한 것이므로 제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과잉업종에 대한 창업이 있을 시 자금 지원을 지양해야 함.

기업체 조사No.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마케팅 필요. · 대출 간편히. · 행정규제완화.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생산 제품의 공동 구매제도 확대. · 친기업적 문화의 확산. · 고유가에 대한 자금지원요(예/ 세금면제).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 조달을 위하여 갖은 노력을 하여 자금 지원을 도로부터 받기는 하였으나 결국 은행에서 대출형식으로 빌어야 함으로 해서 일반 은행 대출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조건이 좋은 업체만 대출 받을 수 있음. 도의 보증제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함.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회의나 만찬시 도내업체 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력 등 능력업체 우선적 사용구조를 원함. · 담보력 주적기업체는 도에서 보증해서 자금 대출 지원.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자금지원 및 유통·물류의 개선.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자세히 해주었으면 함. ·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 1인의 업무량 또는 기관의 담당공무원 등의 업무량이 많거나 병행하다보니 직원의 입장에서는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음으로 작은 정보교류를 원함.
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산품 개발 협조 및 지원. · 외곽지의 고용 불편. · 지원교육의 세부화. · 직원 연수프로그램 지원.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바람. · 전문 마케팅 인원 배치. · 잦은 인사이동 자제 요망.

기업체 조사No.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기지의 확보 및 공동 마케팅 등의 마케팅 지원 필요.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홍보의 중요성을 크게 느낀다.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없이 자체적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장기간의 홍보지원 필요로 하며 공동으로 판매 홍보를 원함.
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를 활용한 정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어려울 때 구 어려움에 대하여 기업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때 규제 및 법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평가하여 완화와 연장 등 그 힘든 부분을 상호 협의하면서 생존해 갈 수 있는 방법 제시. · 기업이 어려움이 없다면 왜 제주도 및 중소기업기관에 의존하나?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관이었으면 함.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지원내용을 현실에 맞게 적용해 주었으면 함.
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제품화를 할 때 필요한 인증마크 및 CI를 사용함에 있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려 잘못하면 기업의 손실로 올 수 있음. · 지원을 받을 때의 양식 또한 너무 복잡함.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이 외지에 있어 인력 수급에 어려움 뿐만 아니라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부족으로 부품 등이 고장이 날 경우 화북공단이나 멀리 서울까지 갔다와야 함. · 제주시에서 20~30분 거리에 아파트형 공장 등 농수산 가공식품 전문공단이 들어섰으면 함.
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심사기준 완화해야 함.
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 공장 운영시 각종 신기술 정보 및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여 성장할 수 있는 의지가 약화되고 있음. · 원자재·상품운송 물류비 절감 대책이 필요함. · 모든 기업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전략적 성장기업을 육성지원 바람.

기업체 조사No.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수처리비 감소. · 교통편의 제공(순환 셔틀 버스 지원요).
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및 구입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요. · 지역별 중소기업 협의체 결성 및 활성화 지원.

연 구 진		
연구책임	김 현 철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안 순 화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시간강사

제주형 제조업 활성화 방안

인쇄일 / 2008. 7.

발행일 / 2008. 7.

발행인 / 허 향 진(제주발전연구원장)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ISBN 978-89-6010-055-8 93320

이 책에 실린 내용은 出處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나 複製는 금합니다.